



## 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7일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

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및 각 지자체로부터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와 이재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은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

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농가 피해 상황과 통계를 챙겨볼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위험지역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지자체, 소방의 공조를 강조하며 “경찰이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교통 통제와 위험지역 통제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아직도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니, 다른 대책은 상황

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오늘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 수도권 집중호우에 경기도, 올해 첫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 가동

### 김동연 지사, “재해 취약계층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경기도가 13일 밤 9시 30분부로 도 전체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표됐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저녁 7시 2단계 가동 후 2시간 30분 만에 격상으로 3단계 발령은 경기도에서는 올해 처음이다.

3단계 격상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하며 행정1부지사가 총괄관리를 하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밤 11시경 비상 3단계 가동에 따라 경기도청사 2층에 마련된 재난 안전 제1상황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제1상황실에서는 도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41명이 근무 중이다.

김 지사는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 받은 후 밤 11시경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던 파주시 김경일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응 상황을 살폈다. 이어 조선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도 전화해 빈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반지하 거주 주민 등 재해에 취약한 도민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3일 밤 11시 30분 기준 경기도

에는 남양주 112.5mm, 가평·구리 108.5mm, 오산시 95mm 순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 31개 시군 평균 강우량은 72.7mm를 기록했다.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도는 하남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재소 중인 19명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남시 노인복지회관으로 대피시켰다. 이밖에 성남시 중원구 한 주택 담장이 무너지고, 남양주 수동면 주택 사유지가 유실되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경기도는 현재 긴급재난문자 50회, 문자메시지 98회, 재난 예·경보 400회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하천변 산책로 출입구(3,721), 둔치주차장(40), 세월교·소교량(205), 급경사 붕괴 우려 지역(53), 산사태 우려 지역(129), 해안가·낙서터(8) 등을 대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호우 피해 예방 위한 총력대응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민 대피 최우선 중점 지시



현재 도내 전지역 호우경보가 발효 중으로 13일부터 오늘(15일) 06시까지 청주 331mm, 제천 304mm, 괴산 297mm 등 도내 평균 267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체장과 15일 06시 경 긴급 회의를 실시했다.

금일(15일) 06시 현재 무심천 수위는 5.45m로 홍수경보 수위인 5.0m를

넘었고, 괴산댐 수위는 댐 정상 표고인 137.6m를 넘어 월류가 시작됐다

이에, 무심천 인근 청주와 괴산댐 하류에 위치한 충주, 괴산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시군 단체장에게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위험지역 주민들 사전 대피 및 지역 통제를 긴급히 지시했다.

취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괴산댐 하류 지역에 신속히 알리고, 위험지역 주민 모두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며, 경찰·소방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했다.

또한, △인명피해 예방으로 선제적으로 사전대비 적극 추진 △괴산댐, 대청댐, 용담댐 등 댐과 주요 하천 수위 유심히 검토하고 전체적인 물관리에 대한 통합적 시각으로 관리 필요 △취약지역 중



심으로 현장점검 실시 △가용 재난자원을 적소에 배치하여 도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회 복지 역할을 총 집결하여 피해지역 지원 등을 지시했다.

앞서 김영환 도지사는 14일 23시경에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해 강수현황과 피해현황을 듣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충북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청주, 충주, 괴산 위험지역 거주 주민 754세대 1,310명에 대하여 15일 새벽에 선제적으로 주민대피 명령을 발령하고, 현재까지 486세대 876명이 대피했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도지사는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과 경찰 및 소방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사전 예찰, 우선 대피 및 지역 통제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 경북도, 비탈면 붕괴 대비 주택 긴급 안전점검

경북도는 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및 비탈면 주변 주택 지반 등을 중심으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긴급점검은 15일부터 19일까지 경북도와 22개 시군 건축부서 및 경북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이재철 회장 외 687명)

이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주택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비탈면 주변 주택 지반 등 안전 점검과 대피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비탈면 붕괴 위험지역 인근 주택을 점검하고 기 지정된 위험지역을 포함해 산림인접 주거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피 장소 지정 및 야간, 새벽시간 돌입 전 선제적인 사전대피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탈면 붕괴취약지역, 산사태취약지구 등 주택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회색빛 일상에 푸르른 심포... 떠나.자!

**예천\_회룡포**

좋아요 79,848개  
yecheonun #육지안의섬 #뽕봉다리 #트래킹

**예천\_곤충생태원**

좋아요 89,719개  
yecheonun #모노레일 #다양한체험 #놀이동산인줄

**예천\_강물화전시관**

좋아요 69,752개  
yecheonun #삼강주막근처 #아이와함께 #키즈카페인줄

**예천\_삼강주막**

좋아요 82,134개  
yecheonun #삼강주막 #마지막주막 #주모한상

#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긴급방문

## 피해 주민 위로와 피해현장 긴급복구 및 철저한 대책마련 당부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7월15일 오후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과 도로 등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피해현장을 긴급 방문해 응급 복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 했다.

현재 장마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서 13~15일 사이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산사태와 주택 붕괴에 따른 매몰 사고가 잇따르며 사망·실종자가 속출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가 입힌 침수와 산사태, 하천범람 등의 자연재해가 수많은 도민들에게 인명과 재산적 피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며, “상심에 빠진 피해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집행부에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 및 조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경상북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하여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장 긴급복구 및 집중호우 추가 피해 방지 위해 모든 행정력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과 김대진 의회운영부위원장도 “총력 복구 조치로 빠른 시일 내 응급복구를 완료해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문경, 예천, 영주, 봉화 등 지역구 도의원과 협력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근수/기자



# 부천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열고 8일간 활동

부천시의회는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열었다.

최성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특히, 오송지하차도 침수피해와 예천의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온다고 하니, 우리 시 역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걸쳐 철저히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빈틈없는 재난예방정책 추진을 당부하며, “우리 의회도 지역 내 현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함께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장은 “오늘은 제75주년 제헌절”이라며 “제헌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 부천 시민은 시민으로서 충분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1일 오전, 소사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인 서해선 소사대곡 구간이 개통됐다”라며 “출퇴근 시간이 많

이 단축돼 행복하다는 한 시민의 인터뷰를 보며,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이야말로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지역 내 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은 원도심 내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과 주차 공간 확보에 더없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내년엔 개선된 주거환경을 시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계획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정했다.

오는 7월 18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진행하고,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용민/기자

# 전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조례’ 제정한다

## 최선국 도의원 대표발의,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는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선 것이다. 조례안은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남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수자원의 확보와 물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의 경감 및 예방, ▲빗물 관리와 물의 재이용 촉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및 이용, ▲물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통합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기술개발,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 등의 사업 추진은 물론 물문화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도가 물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전남도의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도민안전실장과 농축산식품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해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대응과 농업용수 공급에도 초점을 맞췄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나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악의 가뭄에도 지표수와 빗물, 지하수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의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의회와 영산강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도 함께

하고 있어 최 위원장이 발의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이 전남의 다양한 물 문제를 풀어내는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전남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렸는데 ‘극한 호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며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도민 누구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가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이르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 전라남도



# 완주군의회, 긴급수해 복구 지원에 구슬땀

완주군의회가 17일 지난 14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복구에 바쁜 일손을 도왔다.

지난 14일 오전 4시를 기해 호우경보가 발표됐으며, 14일부터 17일(오전 6시 현재)까지 평균 누적 강수량은 362mm의 비가 쏟아졌으며, 누적 최고 강수량은 동상면 452mm의 비가 내려 산사태 및 도로유실 등 크고 작은 호우피해가 발생했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 17일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상황에서 긴급복구를 실시하는 현장을 둘러 현황을 파악하고, 일손을 도운 것

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산면 남봉리의 침수피해를 입은 사무실을 찾아 사무집기를 나르고, 건물안에 토사를 치우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서남용 의장은 “갑작스런 폭우에 많은 농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긴급복구가 필요한 곳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완주군 전체가 많은 피해를 입은 만큼 자심 소강상태일 때 추가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부터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기자



# 경기도의회 광미숙 의원, ‘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전통주 문화 확산과 경기미 소비 촉진 필요해



광미숙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호 한국식품연구원 박사는 “경기도 술 산업 현황

을 설명하고, 경기도 술 산업 육성을 위해 주세의 지방세화, 경기 전통주 전문기관의 홍보컨설팅을 통한 양조제품의 고급화, 경기도 4개 권역에서 경기 전통주 창업교육기관 운영”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대형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사는 “2008년부터 진행된 경기도의 전통주 R&D 연구의 배경은 전통주 개발 및 판매로 경기미 소비 활성화라고 설명하고, 전통주의 원료인 쌀 연구 필요성과 청년층의 양조 교육, 컨설팅 필요성”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섭 농업회사법인 (주)에사 대표는 “쌀 소비량 저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통주 제조에 활용하여 기호 소비재 상품 전환의 필요성과 자국 주류산업의 성장을 위해 주세법상 감가세율 적용 반출량의 범위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석규 우리술부사장은 소규모 전통주 업체의 판로 확장 한계점 및 시장의 양분화를 언급하며, “전통주 해외시장 확대방안으로 수출 물류비 및 수출 포장재비용의 지속적 지원, 수출 초기비용 지원,

전통주와 K문화 연계, 전통주에 대한 대외 인지도 제고 등”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오서운 오산양조 이사는 오산양조의 운영사례를 발표 후 “지역자원의 선순환의 중요성으로 오산 세마살 활용 사례 및 지역 기반, 전통의 가치, 함께 즐기는 문화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정덕영 88양조 대표이사는 “경기미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디자인, 패키징, 마케팅 비용 지원, 시 단위 복합 식음료 공간 개설, 전통주 문화 확산 및 청년창업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광미숙 의원은 전통주에 대한 다양한 개발뿐만 아니라 전통주를 활용한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지미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김도훈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최만식/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영인, 발행인: 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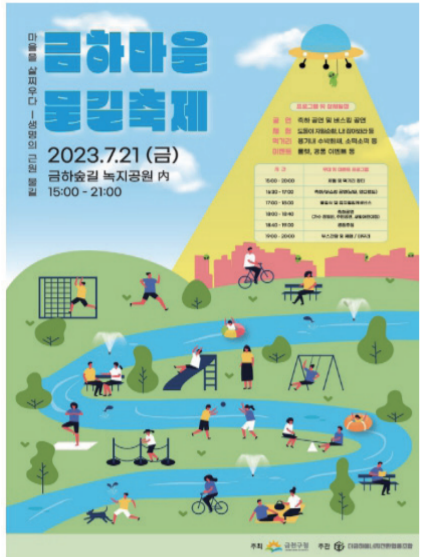
편집국: 02.2612.2959      경 지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 내선 (113)      부 통 산 부: 내선 (117)  
 광 고 국: 1899.9659      경 계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키야빌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천구, 도시재생 '금하마을 물길축제' 개최

## 외계인 침공 뮤지컬, 축하공연, 다양한 주민체험 프로그램 진행



금천구는 7월 21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금하마을 물길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독산동 금하마을의 상징인 금하숲길(독산동 1094번지 일대)에서 '생명의 근원 물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행사는 금천구 도시재생 1호 기업 '더금하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된다.

금하숲길은 마을 사람들이 정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 숲의 역할을 하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큰 나무를 사이로 화단, 나무 의자, 산책로, 시냇물처럼 흐르는 '물길'이 있어 주민들의 훌륭한 휴식 공간이다.

축제는 대내외적으로 도시재생 금하마을을 널리 알리고, 무더위 속 지친 마을 주민들의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물로켓 쏘기, 색상 음식 치료법(컬러푸드테라피) 등 다양한 주민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오후 5시에는 금하숲길 내 물길을 소개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이어 금하마을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금하마을의 도시재생 목표인 에너지 자립마을, 즐거운 생태마을을 주제로 금하마을 주민과 전문 공연팀이 함께 뮤지컬 공연을 준비했다.

금하마을을 침공한 외계인이 금하마을 사람들(녹벤저스)에게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배워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금하마을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립, 노후주택 정비, 녹지환경 개선, 금하숲길 조성, 마을진출입로 확장 등을 마무리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5년간 진행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모두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금하마을이 발전하고 주민들이 화합해 아름답고 훌륭한 마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 영등포구, 미래의 청년리더 영등포오랑으로 모여라

## 7월 27일까지 '원O모어(MORE) 커뮤니티 청년 리더' 모집



영등포구가 7월 27일까지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원O모어(MORE) 커뮤니티 청년 리더'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O모어(MORE)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오랑에서 진행되는 신규사업이다. 청년 리더가 공통된 관심사를 매개로 한번 더 만나고 싶은 청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커뮤니티가 원만한 동그라미 형태의 공동체로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청년 리더 중심의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 단절과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기회를 갖는다.

모임 유형은 관심 주제에 따라 ▲운동, 취미 등 친목을 다지고 관계망을 형성하는 '관계 형성형' ▲취업, 재테크 등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스터디형' ▲영상 제작, 글쓰기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젝트형'으로 총 3가지이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활동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이다. 지역 내 커뮤니티 모임을 운영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 청년 리더에 도전할 수 있다.

구는 최대 20명 내외로 청년 리더를 모집한 후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참여 태도, 모임활동 계획 발표 등 평가를 통해 청년 리더 5명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 리더들은 각 커뮤니티에 참여할 조원을 8명 내외로 모집한다. 총 5개 커뮤니티, 40명 내외의 청년들이 활동하며, 커뮤니티별 최대 48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각 커뮤니티 활동 외에도 모든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교류회'도 진행된다. 청년들은 3회에 걸친 커뮤니티 교류회를 통해 그간의 커뮤니티 활동을 공유하고 참여자 간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우리구 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7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최종 청년리더는 8월 7일에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긴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소통과 교류의 장에 참여한 청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길 바란다.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청년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향신/기자



# 성동구, 연일 폭우에 산사태 취약지역 등 긴급 점검 나서

## 폭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절개지, 공사현장 등 긴급점검



서울 성동구는 이어지는 폭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및 공사장 등 관내 주요시설을 긴급 점검했다.

최근 폭우에 흩어 빗겨 나가면서 성동구 아파트에서 산벽자연석이 이탈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 침수 등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동구는 관내 공원 59곳과 산사태 취약지역 및 절개지 8곳, 축대, 공사장 등 취약시설 점검에 나섰다. 매봉산, 응봉산, 대현산 등을 살피고 산지 내 위험 사면을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 상태, 경사면 균열 및 침하, 수목전도, 침식 여부를 확인했다. 호우가 이어지는 만큼 상황반을 꾸려 장마 종료 때까지 점검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동구는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로 산지형 공원의 등산로를 통제하고, 하천 범람을 대비하여 하천과 이어지

는 육길문을 폐쇄하는 등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앞서 성동구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5월부터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 수문, 하수시설,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과 공사장, 축대, 옹벽, 상점가 등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17개 동 주민센터에서는 피해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구에서는 관내 9곳의 빗물펌프장을 가동하고 빗물받이를 점검하는 한편, 지난 6월 말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차수판과 역지반, 개폐식 방범창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여름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면밀히 살펴 주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송파구, '석촌호수 아뜰리에' 청년예술가 리사이틀 '자람:Grow' 공연 개최...7월 18일까지 출연자 공모

## 국악·클래식 2개 분야, 총 18인의 전문예술가 선정해 리사이틀 기회 제공

송파구는 오는 7월 18일까지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열리는 리사이틀 공연 '자람:Grow'에 출연할 청년 전문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장래성 있는 청년예술인을 선발하는 리사이틀 '자람:Grow'을 추진하여, 전문예술인들에게는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독주회를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할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국악(기악/성악/타악) ▲서양음악(기악/성악/피아노) 전공자다. 오는 7월 18일까지로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 및 동영상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7일에 2차 실기심사를 진행, 전문가 면접을 통해 최종 18명의 전문예술인을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7월 28일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18인의 청년예술인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추천한 일정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19:00에

리사이틀 공연을 개최하게 된다. 마지막 주에는 리사이틀 '자람:Grow'의 모든 연주자들이 함께 연발 피날레 '자람:Grow'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석촌호수 아뜰리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석촌호수 아뜰리에'는 2019년 11월 개관한 석촌호수 서호변 1층 규모 시설로 소규모 공연장과 카페, 옥상정원 등이 마련되어 있다. 구는 석촌호수를 찾는 방문객들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여 일상 속 열린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공연 관람을 원하면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에서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신진예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청년예술인들의 리사이틀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송파주민 모두가 언제든지 문화를 쉽게 접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 관악구, 여름방학 맞이 '온라인 입시컨설팅' 운영

## 오는 7월 21일까지 200명 선착순 모집...

관악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입시컨설팅을 제공한다.

먼저 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등을 비롯한 모든 수시전형 전략지원을 위한 1:1 맞춤형 '대입수시 컨설팅'을 운영한다.

'대입수시 컨설팅'은 일반고, 자사고, 특성화고에서 15년 이상 진로진학 컨설팅 경험을 가진 공교육 입시전문가 '관악구 진로진학자문 컨설턴트' 25명이 1개 가정당 40~50분 동안 진행한다.

컨설턴트는 학생들의 교과성적, 생활기록부, 모의 성적표 등을 기반으로 ▲지원 가능한 수시전형, 대학과 학과 ▲수시 전략 등 효율적인 수시 준비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고입과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내신, 생활기록부 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입시전략 컨설팅'도 함께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2025~2026학년도

<p>공교육 진학컨설팅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1:1 컨설팅</p> <p><b>관악구 2024 학년도 대입수시 온라인 컨설팅 참가가정모집</b></p> <p>운영기간: 2023년 8월 01일 - 9월 03일 매주 월-일요일</p> <p>신청 문의전화 02-873-8815-7</p> <p>참여대상: 관악구 일반고, 특성화고 3학년/3학년/특수생</p> <p>필수사항: 학생부교과/종합성적, 생활기록부, 모의 성적표</p> <p>상담신청: 관악구교육지원센터 불우7-2 2층 202호</p> <p>모집기간: 2023년 07월 17일 - 7월 21일까지 선착순 마감</p> <p>유의사항: 신청서류는 관악구교육지원센터 불우7-2 2층 202호에 접수한다.</p>	<p>공교육 진학컨설팅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1:1 컨설팅</p> <p><b>관악구 여름방학 고입관리 온라인 컨설팅 참가가정모집</b></p> <p>운영기간: 2023년 8월 01일 - 9월 03일 매주 월-일요일</p> <p>신청 문의전화 02-873-8815-7</p> <p>참여대상: 관악구 일반고, 특성화고 1,2학년 재학생 대상</p> <p>필수사항: 학생부교과/종합성적, 생활기록부, 모의 성적표</p> <p>상담신청: 관악구교육지원센터 불우7-2 2층 202호</p> <p>모집기간: 2023년 07월 17일 - 7월 21일까지 선착순 마감</p> <p>유의사항: 신청서류는 관악구교육지원센터 불우7-2 2층 202호에 접수한다.</p>	<p>공교육 진학컨설팅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1:1 컨설팅</p> <p><b>관악구 여름방학 대입 관리 온라인 컨설팅 참가가정모집</b></p> <p>운영기간: 2023년 8월 01일 - 9월 03일 매주 월-일요일</p> <p>신청 문의전화 02-873-8815-7</p> <p>참여대상: 관악구 일반고, 특성화고 1,2학년 재학생 대상</p> <p>필수사항: 학생부교과/종합성적, 생활기록부, 모의 성적표</p> <p>상담신청: 관악구교육지원센터 불우7-2 2층 202호</p> <p>모집기간: 2023년 07월 17일 - 7월 21일까지 선착순 마감</p> <p>유의사항: 신청서류는 관악구교육지원센터 불우7-2 2층 202호에 접수한다.</p>
--	---	--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이다.

'대입수시 컨설팅'과 '입시전략 컨설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생활기록부, 모의 성적표(대입관리 컨설팅 참가 시)를 준비하여 관악진로 직업체제 지원센터 블로그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관악진로직업체제지원

센터와 함께 입시정보카페인 '공교육과 함께하는 관악구 입시상담실'을 운영, 수시 합격생 수기, 경쟁률 분석 자료 등 2024학년도 대입에 필요한 입시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입시컨설팅을 통해 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미국 피닉스시 시장 만나 반도체 등 미래성장산업과 청년사다리 프로그램 교류협력 확대 논의

### 염태영 경제부지사, 14일 미국 피닉스시 케이트 가에고 시장 만나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미국 피닉스(Phoenix)시 케이트 가에고(Kate Gallego) 시장을 만나 반도체,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양 지역 선도산업과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식 일정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면담장을 찾아 케이트 가에고 피닉스시 시장과 야샤민 안사리(Yassamin Ansari) 부시장 등 피닉스시 대표단 방문단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4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

치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바 있다”라면서 “피닉스시가 애리조나주에서도 핫플레이스임을 알고 있고, 자매결연 도시인 수원시뿐 아니라 경기도와의 교류 협력 또한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피닉스시에 TSMC사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TSMC사를 유치하게 되어 반도체 관련 긴밀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의 방문과 연수 기회가 없는 젊은이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격차를 좁히고,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미국 3개 대학, 중국 1개 대학, 호주 1개 대학과 진행 중인데, 피닉스시에 있는 대학교와도 협업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케이트 가에고 시장은 “애리조나주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국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으며, 피닉스시에 TSMC가 있고, 경기도에는 삼성이 있어서 협력할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닉스시는 모빌리티가 발달해 무인 자율주행차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인데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등 많은 기술이 한국 기업에서 나오고 있으며, 애리조나주립대의 외국인 학생수는 미국 전역에서 1위이고 한국 학생도 많다”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피닉스시는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의 주도로, 관광도시이자 우주 항공, 반도체,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도시다.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공장을 유치해 건설 중이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경기도와 피닉스시 관심 분야인 미래성장산업 교류를 위해 피닉스시 지역사회-경제개발국장, 피닉스시 국제교류과장도 함께했다. 경기도는 이날 피닉스시 시장 대표단과의 면담이 도-피닉스시 간 협력뿐 아니라 애리조나주와의 교류의 물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염태영 부지사는 수원시장 재임 시절인 2021년 10월 피닉스시를 방문해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인연이 있다. 케이트 가에고 시장과는 2년 만의 재회다. 수원시와 피닉스시 간 교류 협력은 청소년 대사 프로그램(교섭 5명 교류), 화상 언어(양 시민 10명 참여), 로스쿨(아주대-애리조나주립대) 등 민간 부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만식/기자

## '제8회 화성시 청소년ESG×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대회' 시상식 개최



화성시가 14일,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제8회 화성시 청소년 ESG×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대회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분야별 화성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집해 동·서 균형 발전, 환경 등 총 17개

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서류 심사를 통해 8개 팀의 현장 심사 발표를 진행했다. 대상은 장안여자중학교 및 팻깡이 팀의 '땀방이 농산물 반찬 키트 제작·판매'가 차지했으며, 비규격 농산물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고 지역농가의 상상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우수상은 2개 팀으로 동학중학교 'koom(꿈)'팀의 '지구를 지키는 게임(쓰레기 치우는 게임앱 개발)'과, 방교중학교 'COS(Cleaning Our Sea)'팀의 '생분해성 재료로 제작한 친환경 담배 필터(ECF, Eco Cigarette Filter)'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이번엔 대상 받은 장안여자중학교의 이종민 지도교사는 “ESG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이 느껴졌다”며,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만들어 갈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 사회적경제 행사인 소셜벤처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통해 화성시 청소년이 지역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선정된 청소년 아이디어를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공유하여 실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양시현/기자

## 성남시 '독서 소외계층 아동 집에 책 배달합니다'



성남시는 해오름도서관(중원구 중앙동)을 통해 독서 소외계층 아동 집에 책을 배달해 주는 '찾아가는 책 여행 서비스'를 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중원지역 2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받은 한부모·다문화·소년가

성남시 '찾아가는 책 여행 서비스' 퍼 해오름도서관 '찾아가는 책 여행 서비스' 퍼

정의 아동 20명에게 두 달에 한 번씩 희망 도서 25~50권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직원들이 직접 각 집에 배달하는 방식이다. 두 달간의 대여 기간이 끝나면 다시 책을 가지러 간다. 이와 함께 권장 도서 목록을 제공해 어린이 수준에 맞춰 즐거운 독서 활동을 유도한다. 권장 도서는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매달 500여 권씩 선별하는 나이별, 교과 과별 세계 명작동화, 문학상 수상작 등이다. 시는 2019년 처음 이 서비스를 시작해 ▲도입 첫해 60명에 1300권 ▲2020년 75명에 1874권 ▲2021년 62명에 1533권 ▲지난해 45명에 1169권의 책을 배달했다. 부모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해 독서 생활을 할 형편이 되지 않는 아동에게 책을 가까이하는 계기를 만들어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성울/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재난 매뉴얼 허점 찾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재해에 대비해야”

### 17일 간부공무원 회의, 충청·경상지역 수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묵념으로 회의 시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충청·경상 지역의 수해 희생자들에 애도하고, 용인지역의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와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 용인특례시는 17일 이상일 시장의 제안에 따라 충청·경상지역 수해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간부공무원회의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충청도와 경상도 등에 비가 많이 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행한 일이다.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묵념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다른 지역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용인특례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시가 마련한 재난 대비 매뉴얼의 허점을 찾아내고 비합리적인 것은 점검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재해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동천동 고기교와 모현을 일대 등 지난해 비 피해를 입었던 지역을 찾아 대비상황을 살펴보니 사전 조치가 잘 돼 있었다”며 “상습피해 지역이나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소강상태일 때 현장 점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를 거시로 파악해 수해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경찰·소방과 긴급재난 협약을 맺었다. 비상연락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재해발생시 유기적 협조 시스템을 작동해 음·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구장비 지원 등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주에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철회했다”며 “노동조합이 불만을 토로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과정 역시 중요

하다.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 절차와 의견수렴 절차를 꼭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부서별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현안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주저하지 말고 시장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용인시 현안 해결을 위해 어느 부처든 마다하지 않고 연락하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시민과 함께 만든 '제8회 수원사람들영화제' 성료

### 개봉 예정작 '지옥만세', '보통의 우주는 찬란함을 꿈꾸는가?' 등 상영, 총 262명 관람



수원문화재단 미디어센터가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시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개최한 '제8회 수원사람들영화제 : Su-TART!'를 성료했다. 제8회 수원사람들영화제는 '시민 영화프로그램'에 선정된 수원시인 9명이 약 9주간의 교육 및 기획 워크숍을 거쳐 영화 선정부터 부대 프로그램 진행까지 맡아 함께했다. 이

번 영화제는 청년층의 삶을 육상트랙에 비유하고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 이전 개관한 수원시미디어센터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로 'Su-TART!(수-타트!)'를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3개의 섹션(스타트 라인, 바톤 터치, 트랙 백)을 지정하여 청년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총 7개 영화를 상영했다. 오는 8월 개봉을 앞둔 임오정 감독의 '지옥만세' 프리뷰 상영을 비롯하여, 전 주국제영화제 프리미어 초청 '보통의 우주는 찬란함을 꿈꾸는가?' 등 수원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영화를 선보였고, 3일간 총 262명의 관객이 방문했다. 상영뿐만 아니라 감독, 평론가 등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를 통해 영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이루어졌다. 시민 영화프로그램도 영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이루어졌다. 시민 영화프로그램도 영화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이루어졌다. 시민 영화프로그램도

## 고양 주엽어린이도서관, 독서대전 개최 기념 '홍홍 작가 전시회' 개최

### 7월 24일부터 홍홍 작가의 방 '홍홍월드 초대관' 운영

고양특례시는 세계그림책 특성화 주엽어린이도서관이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를 기념해 7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골짜기공작실 그림책 갤러리에서 홍홍 작가의 방 프로그램인 '홍홍월드 초대관'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홍홍 작가의 신작 '들썹들썹 오삼불고기'와 전작 '팔팔머뭉' 등 작가의 동화책 창작 과정과 작품 원화를 감상할 수 있다. 김홍식 작가는 "'홍홍월드 초대관'은 놀이동산 같은 전시"라며 "아이뿐 아니라 보호자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창의력을 자극하는 즐거운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유아(3~7세)를 대상으로 7월 29일과 8월 5일 오후 3시 '작가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1회차 프로그램은 갤러리에서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전시 해설과 그림책 강연으로 진행된다. 2회차 프로그램은 어울림터에서 클레이로 다양한 꼬치를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참여 아동이 만든 작품은 촬영한 뒤 사진으로 간직할 수 있다. 전시 관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전시 연계 프로그램 신청은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영기/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 집중호우 상황 점검하고 선제적 안전조치 지시

## 총 74건 피해 상황 접수, 산사태·비탈면 등 위험지역 398개소 긴급점검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 7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앙부처 장관 및 17개 시도 단체장이 온라인으로 개

최한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 후, 인천시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

혔다. 지난 14일 오전 5시를 기해 인천, 강화, 옹진에 내리진 호우경보는 해제됐지만, 지난 나흘간 연수구 동춘동은 누적 177.5mm, 부평구 구산동은 177.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지난 13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17일 현재 인천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사흘간 공사 및 담장 붕괴, 토사유출, 침수 등 소방본부 피해접수 53건, 군·구 피해접수 21건 등 총 7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현재 접수된 피해 상황은 모두 복구한 상태다. 또 한때 통제됐던 지하차도와 도로는 모두 통제가 해제됐지만, 하나개 해수욕장 해수담방로, 무의도 트래킹 돌레길 등 중구 해변 산책로 4곳과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중구 갯골수로 친수공간 산책로를 비롯한 율왕리·왕산·하나개·실

미 해수욕장 등 중구 해수욕장 4곳은 시민 안전을 위해 여전히 통제 중이다. 또한 이번 주 초에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군·구와 함께 15일부터 이틀간 산사태·비탈면 등 위험지역 398개소 긴급점검하는 등 예찰활동과 안전조치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재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측체계를 갖춰 선제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저지대 침수는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지하상가를 비롯한 저지대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해, 재해·재난 상황에도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중남/기자

# 시흥시, 비탈면 붕괴대비 점검 대책 회의 및 현장예찰...인명 피해 예방 '총력'

시흥시는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15일 새벽 사이 다수의 비탈면 토사 매몰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16일 10시 비탈면 붕괴대비 점검 대책 회의를 열고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각 시군 구에서 비탈면 붕괴대비에 관련해 대피지원단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연제찬 시흥시 부시장 주재로 1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긴급 점검 회의에는 안전관리자문단, 재해영향평가위원, 지하안전위원 등의 민간전문가와 11개 관련부서장, 2개 군부대,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등이 참석해 비탈면 붕괴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논의했다. 앞서 연제찬 부시장은 호우 경보 발령 전인 지난 13일 상습침수구역을 돌며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침수 예상지를 현장 통제하는 등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대응 태세를 견고히 구축해 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탈면 붕괴 관련 긴급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관내 비탈면 점검현황과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공무원, 전문가, 경찰, 군부대 등으로 구성된 비탈면 붕괴 점검 대피지원단은 ▲비탈면 안전진단 판단(전문가) ▲대피 명령 협조 및 이동 지원(경찰)에 집중하기로 했다. 연 부시장은 비탈면 붕괴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와 더불어 취약지역에 대

한 점검과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긴급회의에 이어 비탈면 붕괴 위험지역의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시는 이미 지정된 위험지역을 포함해 산림 인접 주거지 집중 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힘을 모았다. 권역별로 ▲하우로의 주택가 인근 비탈면과 옹벽 ▲정왕·목감·방산동의 농지 주변 및 경사지 주변 지하차도 ▲하중동·물왕동·산현동·장곡동·광석동의 급경사지 ▲별말·뒷방울·거오·능곡·목감·물왕·대야·신천 배수지 주변의 산사태 취약지역의 점검과 정비 를 강화했다. 시는 점검 결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에는 사전 주민대피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대피 장소를 지정해 구호물품을 준비하고, 야간, 새벽시간대 돌입 전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사전 대피를 진행한다. 특히 군부대, 경찰, 소방, 구호기관,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현장요원으로 배치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 대응에 임할 방침이다. 하우로 주택가 비탈면 현장시찰에 나선 연제찬 부시장은 "아직까지 우리 시흥시는 철저한 사전 대비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었지만, 국지성 호우가 지속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현장 예찰과 밀착 관리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 안양시, 2학기 안양학 개강 준비...지도교수·실무자 간담회 개최

## 안양예술공원·김중업건축박물관 등 현장학습 실시 예정

안양시는 2023년도 2학기 안양학 개강을 위해 대림대·안양대·성결대·연성대 등 4개 학교와 함께 17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대호 안양시장과 관계 공무원, 각 대학 교수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산동의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안양학은 안양시의 역사와 문화, 현황 등에 대해 여러 명사가 특강 형식으로 15주 동안 강의를 진행하는 수업이다. 최 시장은 '청년이 행복한 안양'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 2학기에는 '현장학습'을 새롭게 추가해 학생들에게 더욱 다채롭고 생생한 안양학을 제공하기로 했다. 안양예술공원 및 김중업건축박물관 등 명소 견학을 통해 예술과 역사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안양산업진흥원과 연계해 견학 및 청년 창업이 특강 등을 실시해 취업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학생들이 안양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며 "좋은 교육 기회를 발판 삼아 안양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건강한 청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안양학은 지난 2019년 시 정책공모전에서 '안양사람이 대학생에게 전하는 안양이야기, 안양학개론'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2020년 안양대에 첫 개설을 시작으로 4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신우용/기자



# 안산시 노인케어안심주택 찾은 해외대학 교수들...노인돌봄 현장방문



안산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인케어 안심주택사업이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단원구 소재 노인케어안심주택에 영국 노팅엄대학교 및 네덜란드 헤이그 응용대학교 교수진, 일본 및 한국 국립재활원 관계자 등이 방문해 어르신 돌봄 현장을 살펴봤다.

이날 방문은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의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선도지역과 지역복지 우수사례 분석 등을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2019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노인분야) 선도사업에 선정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운영 ▲방문주치의 사업 ▲맞춤 영양서비스

▲방문가사 서비스 등 모두 27종에 달하는 어르신 노후 맞춤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인케어안심주택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존 노후주택을 재건축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현재 총 19가구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또한 본오2동에 위치한 제3호 노인케어안심주택은 모집공고를 통해 이달 19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 돌봄을 실천하는 곳으로 통합돌봄 주거모델의 표준으로 주목받으며 국내 뿐 아니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일본 복지대학 교수진 등 해외 대학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문자 일동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돌봄 현장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단을 맞이한 김대순 부시장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총합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2단계 고도화사업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5년까지 2년 6개월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노인케어안심주택 확대 ▲재택의료센터 강화 ▲권역별돌봄매니지먼트 체계구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맞춤형영양서비스 및 방문가사서비스 ▲동행이동서비스 등 민·관·주민이 함께 만드는 온마을돌봄 안전망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한다. 최정부/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 "목감천 저류지 설치사업 신속히 추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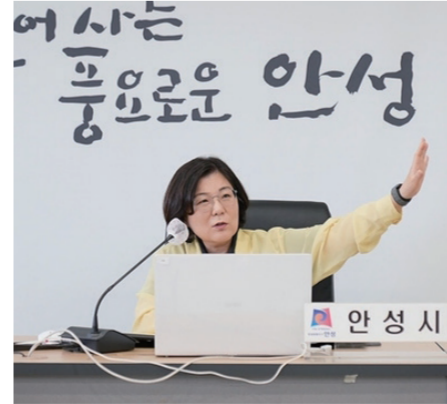
박승원 광명시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감천 저류지 설치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17일 오후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오경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최민 경기도의원, 시의원 등과 목감천 저류지 예정지 현황을 방문해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작년 1시간만 비가 더 내렸어도 목감천 전체가 범람했을 것"이라며 "목감천의 상습적인 범람으로 인근 주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목감천 저류지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흥원 청장은 "기재부, 광명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도심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에 따라 올해 착공이 예정된 사업이다. 사업은 23만 9천㎡ 규모 저류지 1개소와 제방 7개소, 교량 재가설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천800여억 원이다. 실시결과 결과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1천억 원가량 증가해 현재 기재부에서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중이다. 목감천은 하류(도심지) 구간 의 계획홍수량(765m³/s) 대비 28%(210m³/s)만 하도 분담이 가능해 치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하천이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1시간 최대 강수량 109.5mm, 누적 강수량 503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식교 인근 제방과 개명교 등 일부 지역에서 범람해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시는 하류 양안에 1~1.8m 높이의 홍수 방어벽과 개명교, 개우교에 교량 차수판을 설치해 홍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수해 현장 점검을 위해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목감천 저류지 설치 협조를 거듭 요청한 바 있다. 윤용민/기자

# 김보라 안성시장,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나서

김보라 안성시장은 호우경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가운데 소관 담당 부서장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호우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직접 확인하며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 14, 15일 이틀에 걸친 집중호우로 범람한 건지소하천과 침수 피해를 입은 양성 한화테크노벨리 공사 현장 등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다. 안성시는 이번 비상근무에 공무원

126명(보청 27개 부서 및 15개 읍면동)을 투입하여, 15일 12시까지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다행히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는 없었으며, 선제적 안전조치로 산사태 및 침수 우려 상황에서 3개소 11세대 17명을 일시대피 조치를 했으며, 둔치 주차장 4개소, 세월교 2개소, 하상도 2개소 및 안성천, 승두천, 청미천, 금석천 일대 하천변 산책로 진입을 차단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피해를 본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하천, 하수관 등에는 퇴적물을 제거하여 폭우 시 도로변 물 고임 지역은 배수 정비와 준설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각 마을마다 설치된 마을방송 309개와 하천변, 저수지, 세월교 등 재해 감시를 위해 설치된 재난예경보시설 81개를 운영하여 수시로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상황 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피해를 본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하천, 하수관 등에는 퇴적물을 제거하여 폭우 시 도로변 물 고임 지역은 배수 정비와 준설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안성시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김보라 안성시장은 "피해를 본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하천, 하수관 등에는 퇴적물을 제거하여 폭우 시 도로변 물 고임 지역은 배수 정비와 준설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목감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도심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에 따라 올해 착공이 예정된 사업이다. 사업은 23만 9천㎡ 규모 저류지 1개소와 제방 7개소, 교량 재가설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천800여억 원이다. 실시결과 결과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보다 1천억 원가량 증가해 현재 기재부에서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 중이다. 목감천은 하류(도심지) 구간 의 계획홍수량(765m³/s) 대비 28%(210m³/s)만 하도 분담이 가능해 치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하천이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1시간 최대 강수량 109.5mm, 누적 강수량 503mm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식교 인근 제방과 개명교 등 일부 지역에서 범람해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시는 하류 양안에 1~1.8m 높이의 홍수 방어벽과 개명교, 개우교에 교량 차수판을 설치해 홍수를 방어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수해 현장 점검을 위해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목감천 저류지 설치 협조를 거듭 요청한 바 있다. 윤용민/기자

# 순천시,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

## 지원규모 50%→100% 확대,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 분기별 지급

순천시가 장애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위생용품 구입비의 규모를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2분기 지급분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며 매달 5만원 한도 내에서 분기별 합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기저귀 등 위생물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 2세(만 25개월)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항목 배변·배뇨 4단계인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상태를 확인받은 자, 일상생활동작 검사서 항목 배변·배뇨 점수 2점 이하인 자이다. 단 시설수급자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연중 모집하며, 신청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활동지원 종합조사 및 중증와상장애인 확인조사를 받지 않은 신청인은 일상생활동작 검사결과가 첨부된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가족복지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장애유형,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인권존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기저귀 등 위생물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 2세(만 25개월)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항목 배변·배뇨 4단계인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와상 상태를 확인받은 자, 일상생활동작 검사서 항목 배변·배뇨 점수 2점 이하인 자이다. 단 시설수급자나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연중 모집하며, 신청은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및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활동지원 종합조사 및 중증와상장애인 확인조사를 받지 않은 신청인은 일상생활동작 검사결과가 첨부된 진단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가족복지과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장애유형,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인권존중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준/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관기관 유기적 협력 속 현장 대응 강화 지시

## 산사태·독 붕괴 등 선제 대처 당부...여수 피해 현장도 점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오전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어 실국별 대책회의를 열어 시군·소방·경찰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현장 대응 강화를 지시하고, 호우 피해 노인복지시설도 점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7시 30분부터 전 시군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날 오전 현재까지 해남 232.3mm, 구례 196.3mm, 곡성 193.6mm 등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렸다. 앞으로 18일까지 시간당 30~8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김영록 지사는 실국별 대책회의에서

“각종 재난경보 시 현장에서 즉시 작동 되도록 부단체장 이상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선제적 대처 조치 및 상시 예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사태, 하천 월류나 독 붕괴 등에 대비해 피해 위험지역을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담당 공무원과 대피 장소 등을 미리 배치·지정해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충북 오송 수해피해 사례를 거울삼아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대피는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로 피해를 입은 여수 노인요양시설 하안연꽃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대피한 어르신 안전을 살핀 후 구호품을 전달했다.

하안연꽃은 지난 15일부터 260.5mm의 강우가 쏟아진 여수 돌산에 위치한 곳으로, 16일 오후 3시 30분경 뒷산 산사태로 토사가 유실돼 입소 어르신과 종사자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영록 지사는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18일까지 강우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지역 주변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복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피한 입소자는 안전이 완전히 보장된 후 시설에 복귀시키고, 피해 시설은 사유시설이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이므로 여수시와 협의해 지원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는 절제지가 많아 관리위험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관리 방식뿐만 아니라 포괄적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8일까지 전남에 위험한 고비가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으므로, ‘열심히 대비하면 재난은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서를 가리지 말고 전 직원이 호우대비에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 장애인 위생 용품비 지원 사업 안내

위생용품(기저귀, 패드 등) 구입비용의 100% 지원 월 5만원 한도 / 분기별 최대 15만원

**사업대상**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 연령기준: 만 2세(25개월)이상 ~ 만 64세 이하
- 선정기준: 아래 기준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자
  -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점수 배변·배뇨·화장실기 사용이 4단계인 자
  - 장애인연금 중증와상장애확인서 발급자
  - 일상생활동작 검사서 중 배변·배뇨 항목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 등본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 신청 시 관계 증명서류 필수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복지카드,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제출** 선정기준 중 ③ 해당자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가 포함된 진단서

**지급방법** 구입 영수증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 / 분기별 청구

구입시기	3월분	4월분 - 6월분	7월분 - 9월분	10월분 - 12월분
제출기간 (영수증 일괄지 제출)	4월 28일(금)	7월 7일(금)	10월 6일(금)	12월 15일(금)

문의처 가족복지과 (061-749-6271)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함평군, 방학 중 우유 무상급식 확대 시행 '도내 유일'

## 초·중·고 전체 학생 2,198명 대상



우유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한해 택배로 각 가정에 배송된다. 함평군의 전체 우유급식 대상 2,198명 중 427명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방학 중 우유급식 대상'으로

알려질 경우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이라는 군정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군은 판단했다.

이에 군은 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방학 중 전체 학생에게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한편, 동·하계 방학 중 무상 우유급식 지원 예산을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급식 추진을 위해 우유 대리점에 공급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도 추진한다.

이상의 함평군은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가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내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 전국 최초·최대 규모 '완도 장보고배 크로스핏 전국 대회' 성료

'2023 SUFF(Summer Ultimate Fitness Festival) 대회'가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완도군 농어민 체육센터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완도군이 주관, 크로스핏 STB 주최로 열렸다.

크로스핏은 짧은 시간 내 몸무게의 근육을 자극하고 다양한 운동을 혼합한 운동법으로, 예선전은 온라인(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됐으며 전국 92개 팀과 450명(개인전)이 본선에 진출했다.

경기는 RXD, 남녀 개인전, RXD 팀전, Scale 팀전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경기 결과, 여자 개인전에서는 1위 김솔비, 2위, Gallerand marie, 3위 하이다, 남자 개인전에서는 1위 소중환, 2위 김건석, 3위 임경휘, RXD 팀전은 1위 황빛어울완도내, 2위 디와이, 3위 나육나정, Scale 팀전은 1위 정글로리 시즌2, 2위 스케일의 문단속, 3위 6반7

반이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단일 종목 최대 규모로 선수 500여 명과 관계자 1,000여 명, 총 1,500여 명이 군을 방문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됐다.

또한 탁 트인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개최되고 크로스핏이 박진감 넘치는 운동인 만큼 관람객들은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관람했다.

크로스핏 STB 관계자는 “완도에서 열린 전국 크로스핏 대회가 선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내년에도 완도에서 경기가 개최된다면 더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오겠다”라고 전했다.

군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완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크로스핏 대회 개최로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활력을 전해줄 수 있었고, 내년에도 대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해양치유와 연계하여 완도를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 세계적 희귀종 '탱구알버섯' 남원 산내에서 10년 연속 발견

세계적 희귀종인 '탱구알버섯'이 남원시 산내에서 10년 연속 발견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원시 산내면 입석마을 주지환(60) 이장이 자신의 사농장에서 탱구알버섯 1개를 발견했으며, 2014년 첫 발견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탱구알버섯'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 숲속, 들판, 풀밭, 잡목림에서 발생하며, 지혈과 해독, 남성 성 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 등을 통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9년 계룡산에서 처음 발견된 기록이 있으며, 전주, 담양 등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해마다 꾸준히 발견된 경우는 흔치 않다.

해외에서는 2012년 캐나다에서 26kg에 달하는 탱구알버섯이 발견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주지환 입석이장은 “벌써 10년째 같은 곳에서 탱구알 버섯이 발견되어 신기하고, 계속해서 탱구알버섯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기존에는 8월 중에 발견됐으나 올해는 7월에 발견된 것으로 보아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남출/기자

세계적 희귀종인 '탱구알버섯'이 남원시 산내에서 10년 연속 발견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원시 산내면 입석마을 주지환(60) 이장이 자신의 사농장에서 탱구알버섯 1개를 발견했으며, 2014년 첫 발견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탱구알버섯'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 숲속, 들판, 풀밭, 잡목림에서 발생하며, 지혈과 해독, 남성 성 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 등을 통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9년 계룡산에서 처음 발견된 기록이 있으며, 전주, 담양 등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으나, 이처럼 해마다 꾸준히 발견된 경우는 흔치 않다.

해외에서는 2012년 캐나다에서 26kg에 달하는 탱구알버섯이 발견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주지환 입석이장은 “벌써 10년째 같은 곳에서 탱구알 버섯이 발견되어 신기하고, 계속해서 탱구알버섯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기존에는 8월 중에 발견됐으나 올해는 7월에 발견된 것으로 보아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남출/기자



# 나주시, 올해부터 중·고교생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호응

올해부터 나주시역 중·고교생이 여름방학 기간 나주시보건소(본소)를 방문하면 연 1회 무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관내 중·고교 학생에게 무료 스케일링을 비롯한 구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스케일링은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보건소 2동 구강진료실(2층)을 방문하면 된다. 대상은 2006~2010년 사이 출생한 18세 미만 중·고교생으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한다.

중·고교생 구강검진 서비스는 유치 또는 영구치 우식에 따른 치아 통증, 조기 치은염, 급성치주질환 예방 등 청소년기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발굴됐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다빈도 질병통계에 따르면 외래 다빈도 상병 5순위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 '치아우식증'은 4위에 포함될 정도로 구강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치석에는 잇몸 염

올해부터 나주시역 중·고교생이 여름방학 기간 나주시보건소(본소)를 방문하면 연 1회 무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8월 30일까지 관내 중·고교 학생에게 무료 스케일링을 비롯한 구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스케일링은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보건소 2동 구강진료실(2층)을 방문하면 된다. 대상은 2006~2010년 사이 출생한 18세 미만 중·고교생으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한다.

중·고교생 구강검진 서비스는 유치 또는 영구치 우식에 따른 치아 통증, 조기 치은염, 급성치주질환 예방 등 청소년기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민선 8기 신규 시책으로 발굴됐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다빈도 질병통계에 따르면 외래 다빈도 상병 5순위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 '치아우식증'은 4위에 포함될 정도로 구강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치석에는 잇몸 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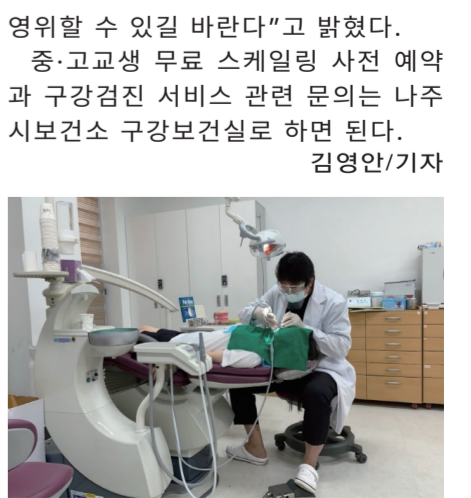
증을 유발하는 세균이 존재하고 있어 치주질환(충치) 진행 여부를 위해서는 스케일링(치석제거)이 필요하다.

보건소는 스케일링과 더불어 올바른 양치 및 구강용품 사용 방법,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1:1맞춤형 구강보건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내 중·고교생 약 40%가 치아 통증을 경험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구강건강 약화는 물론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 1회 방학기간 무료 스케일링을 통해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 치료하고 건강한 학업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고교생 무료 스케일링 사전 예약과 구강검진 서비스 관련 문의는 나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로 하면 된다.

김영안/기자





# 호우로 전북도내 1만4천ha 침수, 응급복구에 총력 기울여

### 7월 13일부터 도내 전역에 집중호우 평균 300mm 이상 쏟아져

7. 14.~17. 사이 집중호우로 익산 할라 504mm 등 전북도내에 평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11개 시·군에 농작물 14,579ha가 침수됐고, 닭, 오리 22만수가 폐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침수피해는 벼 9,577ha, 논콩 4,533ha 등이며, 금강하류에 위치한 익산 용안면, 용동면, 남산면에 위치한 시설하우스 단지 390ha를 포함해 7개 시군에 시설하우스 412ha가 침수됐으며, 축산분야는 익산과 군산지역 35농가에서 닭 20만수, 오리 2만수 등이 폐사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는 군산, 익산 등 도내 북부에 장마 전선이 정체하면서 많은 비가 내려 금강수계와 연결한 용안·용동·남산면 지역의 시설원예단지 390ha의 하우스가 침수돼, 농작물과 농기계 등 시설 장비의 피해가 컸고, 배수 완료후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피해발생시부터 김관영 도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등이 현장

방문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피해농가의 영농애로와 앞으로 재방지를 위한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17일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제 죽산 논콩단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논콩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등에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업용 배수시설의 설계기준 상향, 하우스 내 시설장비 복구비 지원, 논콩 재해보험 가입기간 확대 및 할증을 완화 등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피해신고 농가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농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농작물재해보험 개편과 피해농가를 위한 재해복구비 현실화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신안군, 2023년 초등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 사전 설명회 개최

###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해외문화 체험 캠프

신안군은 지난 14일 신안비치호텔 회의실(10층)에서 어학연수 참가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초등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 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4월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도약위원회/YBM 주관으로 지필시험 및 구술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된 30명과 학부모가 참석하여 어학연수 개요, 운영계획, 준비 및 유의사항, 홈스테이 및 학교생활 등을 안내받았다.

어학연수 일정은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28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위치한 ELM Park School의 정규수업 참여 및 ESOL, 현

지 홈스테이, 현장학습 등을 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해외문화 체험 캠프(1박 2일)와 같이 진행됐으며, 현지 학교생활 및 홈스테이, 현지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한편, 박우량 신안군수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학생들이 신안군의 가장 큰 자원이자라고 생각하며, 이번 어학연수가 영어 실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미래 신안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영진/기자



# 진도군, 청정해역 진도 전복 판촉 행사 열어

### 메가마트 등 42개 대형마트에 진도 전복 7.5톤 판매



진도군이 진도 전복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전복 판촉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전복 판촉 할인행사는 최근 '진도아리랑 청정 수산물 직매입 행사'라는 주제로 (주)메가마트(12개 지점)와 이랜드 김스클럽(30개 지점)에서 열렸다.

서남해안 청정해역 진도 바다는 냉수가 발달돼 있고 빠른 조류의 흐름으로 패각에 부착물이 적은 진도 전복은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씹는 맛이 일품이다.

또한 진도 전복은 어가가 직접 기른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라며, 각종 필수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풍부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진도 전복을 구매한 고객은 “진도 전복만의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에 반해 만족스러운 구매를 했다”며 “더운 날씨에 지친 가족들을 위해 진도 전복으로 보양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총 2주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로 진도 전복은 총 7.5톤 이상, 약 1억 5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려 원전요수 방류로 시름에 빠진 어가들에 작은 위안이 됐다.

진도군 농수산물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바다의 산삼으로 불리고 청정해역 진도바다에서 자란 영양만점 진도 전복이 최고의 품질임을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 진도 수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게 꾸준한 품질 관리와 다양한 판로 개척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17일부터 말복인 8월 10일까지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진도아리랑'에서 전 수산물 3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은 진도 전복을 포함해, 곱창미, 미역, 툷, 소금, 전복장 등 다양한 진도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김영진/기자

# 목포시,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

### 8월까지 공모...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및 기부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8월 4일까지며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업 제안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사업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시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관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모 제안서를 작성해 목포시청 자치행

정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기·보통우편(목포시 양로로 203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 제안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8월 중 선정하며, 심사 결과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자에게는 최우수상(1명) 30만원, 우수상(2명) 각 20만원, 장려상(3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목포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에 보내주시는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 초등 저학년 여름방학 미술 교육프로그램 '교과서를 나온 미술이야기'

화순군은 화순읍 동구리에 위치한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오는 25일부터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는 7월25일 화요일부터 8월 17일 목요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미술 활동들이 준비된 이번 여름학기 프로그램으로는 현대미술을 기반으로 현대미술의 대표적 기법인 야수파,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팝아트를 전문 강사에 의해 쉬운 내용으로 이론을 학습하고, 개인 또는 그룹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하여 현대미술에 대해 쉽게 배워보고자 한다.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 여름학기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초등학생(1~4학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업은 2기수로 나뉘어 진행되며 1기수는 7월 25일 화요일부터 8월 3일 목요일까지, 2기수는 8월 8일 화요일부터 8월 17일 목요일까지이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기수당 4차시로 진행된다.

접수는 7월 18일 화요일부터 7월 21일 금요일까지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초등학생 1~4학년(선착

순 15명)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 방법은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누리집 공지 사항이나, 상담 메뉴 교육프로그램에서 수강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접수를 확인하면 수강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문의는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으로 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윤경호/기자



깊은 예술의 감동을 느끼다



교과서를 나온 이야기

##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

### 여름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023. 7. 18.(화) ~ 7. 21.(금) / 선착순  
 운영기간: 2023. 7. 25.(화) ~ 8. 17.(목)  
 대상연령: 초등 1 ~ 4학년 / 30명(기수당 15명)  
 수강료: 2기수(1기: 7. 25. ~ 8. 3. / 2기: 8. 8. ~ 8. 17.) 10,000원  
 신청방법: 방문 및 이메일(arths2018@naver.com)

\*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홈페이지(http://sbart.or.kr/) 접속 ▶ 상담예약(교육) ▶ 관련 프로그램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이메일 및 방문) ▶ 유선확인(061-379-3836-7)

기수	기수	날짜	시간	주제	방법
1	1기	7. 25.(화)	14:00 ~ 16:00	현대미술 - 야수파란 미술작에 대해 알아보기	이론·실기
	2기	8. 08.(목)			
2	1기	7. 27.(목)	14:00 ~ 16:00	현대미술 - 초현실주의 미술작에 대해 알아보기	이론·실기
	2기	8. 10.(금)			
3	1기	8. 01.(화)	14:00 ~ 16:00	추상미술 - 추상주의 미술작에 대해 알아보기	이론·실기
	2기	8. 15.(토)			
4	1기	8. 03.(화)	14:00 ~ 16:00	현대미술 - 팝아트 미술작에 대해 알아보기	이론·실기
	2기	8. 17.(목)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 arths2018@naver.com | 061) 379-3836-7

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공모전

TAX, 지역 생산자, 기부자, 세금공제, 담배권

# '부산음식(B-FOOD) 레시피' 공개 시식회 개최... '미식도시 부산'을 맞는다

7.17. 18:30 영도구 라발스호텔에서 개최



부산시는 오늘(17일) 오후 6시 30분 라발스호텔 볼레로홀(영도구 소재)에서 '부산음식(B-FOOD) 레시피' 공개 시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시식회는 시가 지난 2월 부터 개발해 최종 완성한 '부산음식(B-FOOD) 레시피'를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다.

'부산음식(B-FOOD) 레시피'란 부산 식재료의 특색을 살리고 부산만의 이야기를 담은 새롭고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고자 전문가 자문 등 논의를 거쳐 구상된 사업이다.

그간 국제행사 등에서 진행되는 만찬 행사에 활용할 부산 음식이 부족하고 부산 음식들이 한식 위주로 편중됐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시는 지난 2월 맛 칼럼니스트 박상현 씨를 포함한 미식 전문가 및 분야별 셰프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조리법(레시피) 개발팀을 꾸렸다.

지역 식재료 현장 조사, 사례연구를 통해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팀별별 조리법(레시피) 개발, 합동 테스트, 내부 시식-평가 단계를 거쳐 지난 5월 말 최종적으로 23종의 조리법(레시피)을 완성했다.

행사는 ▲인사말 ▲개발 과정 오프닝 영상 소개 ▲개발 메뉴 조리법-이야기(레시피-스토리) 소개 ▲시식 순으로 진행된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이종환 부산시의회 의원, 강희구 부산영사단장,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 이태성 부산관광협회장, 강인중 외식업부산시지회 회장, 부산광역시 병원회 회장 김철, 홍신애 요리연구가, 강래오 셰프, 서울미쉐린레스토랑 '온지음' 박성배 셰프, 삼진식품 박용준 대표, 지역신문사, 바앤다이닝(Bar&Dining) 매거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셰프 등 미식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은 개별 조리법(레시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개발팀 셰프들이 직접 조리한 11개의 코스요리를 순차적으로 시식하게 된다.

시는 이번에 개발한 23종 조리법(레시피)을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 및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매체를 통해 23종의 조리법(레시피)을 홍보할 예정이며, 행사장, 호텔, 가까운 외식업소 등에서 맛볼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등에 공식 메뉴로 활용되고, 부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부산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이목을 끌며 부산 음식 브랜드로서 국제적 미식 도시 부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의 향토음식, 식재료, 역사, 환경을 살린 '부산다운' 국제적 표준 음식과 코스를 개발해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손님들에게 맛으로 발견하는 부산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게 됐다"라며, "국제적 미식 도시 부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미식 이벤트와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에선 미증유재해사태... 신종재난

이철우 도지사는 17일 오전 대통령 재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산사태가 아닌 지속적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토사재해로 규정하고 새로운 재난 대응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에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지역에선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 본 적 없는 미증유의 재해 사태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4천958개 소에 달하는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한 곳뿐이다. 10곳 중 9곳이 관리지역 밖에서 발생했다"며 "수백 년 동

안 살던 마을에 발생한 수해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관리방식을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경북 북부지역에 900mm 가까운 비가 내렸다. 이는 1973년 이래 50년 동안 대구경북 장마기간 평균 누적 강수량(292.2mm)의 3배가 넘는 수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도지사는 "단기간의 기록적인 폭우와 평년을 훨씬 넘어서는 폭우가 지속돼 예측하기 힘든 신종 재난이 발생한 만큼 중앙정부와 함께 합동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대책을 모색할 시점이다"라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

6만 구독경제 포인트 구매 시 추가 4만 포인트 지급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와 더불어 양우 폭우 대비와 피해수습에 만전 기할 것



하고 있어서 지역에서는 향후 폭우대비와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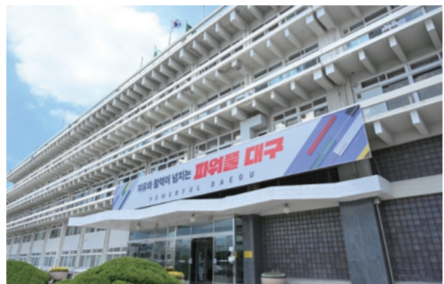
한편, 도는 지난 15일 예방적 주민대피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공무원

원, 경찰, 의용소방대 945명과 시군의 이·통장 7095명을 동원해 15일에는 3073명, 16일에는 2622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윤근수/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 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방문해 연내 입법 요청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특별법 의원 발의안에는 17일 현재

여야 118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서명에는 국민의힘 76명이 참여했고 민주당에서는 38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특별법은 여야의 공감대가 큰 법안인 만큼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입법절차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특별법 제정 지원을 주도로 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많은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

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이끌어내기 로 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은 동서 지역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지닌 법안이다"며,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TK신공항사업의 실질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TK신공항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만큼 신공항 건설 및 후속지 개발사업에 LH, K-water와 같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민간 건설사-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업체에서 참여하는 SPC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 지역 농산물 안전성·품질 더욱 높인다!

## 잔류농약 분석 등 농산물품질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청송군이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연중 운영하는 농산물품질관리센터가 지역 농업인들의 과학농업실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센터는 올해부터 출하 전 농산물 원물시료 2~3kg을 의뢰하면 2주 이내에 463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해주는 '농산물안전성분석' 서비스를 적극 펼치고 있다.

잔류농약 분석은 관내에 주소지와

경각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은 무료로 검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GAP 및 친환경인증, PLS대응 농약안전사용 지도 등에 활용됨으로써 농가의 분석비용 절감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송사과축제 사과왕 선발이나 축제장에 판매되는 농산물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사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가 2021. 3. 25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양 중금속 분석이나 그 외 농산물 당·산도 및 경도 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체 농산물 안전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농가의 외부비용 분석 비용을 절감하



고,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재배환경부터 생산농산물까지 과학영농 실천으로 청송군 농산물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상생협력 협약 체결!

##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을 위한

영양군은 한국수력원자력(주)과 7월 17일 한수원(주) 본사(경북 경주시)에서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36.)' 확정('23.1.11.)에 따라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사업 신청 일환으로 사업 시행체인 한수원(주)과 예비 후보 지자체인 경북 영양군 및 경남 합천군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금일 협약식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하여 황주호 한수원(주) 사장 및 김윤철 경남 합천군수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기관 간 상호협력 및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상생협력 협약식에는 ▲ 양수발전소 사업자 선정 추진 및 사업유치를 위한 노력 ▲ 사업자 선정 후 인허가 ▲ 이주민 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상생발전사업 등 향후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는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영양군은 지난 4월 24일,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70여일 간 보합적인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결의대회를 비롯한 서명운동 및 전 주민 릴레이까지 범군민 유치활동을 펼쳐 왔으며, 6월 30일 군민적 염원

을 담아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를 한수원(주)에 제출한 상황이다.

오도창 군수는 "먼저 양수발전소 건설 및 유치지역 발전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주호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선사업자 선정을 손꼽아 기다리며 한결같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들과 범군민 유치위원회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1

만 6천 영양군민과 함께 향후 양수발전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 양수발전소 우선사업자 선정은 '발전사업 의향조사 공고(전력거래소)' 및 '우선순위 심의.결정(산업통상자원부)'을 거쳐 올해 9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안동형 일자리 사업, 혁신적 창업생태계 기반조성 '눈길'

## 단계별 맞춤형 지원 통한 창업문화 확산 및 생태계 조성

안동형 일자리사업이 다양한 성과와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 창업과 일자리 확충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21년 시작해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안동형 일자리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주도하여 기업과 함께 만드는 지역혁신 일자리모델이다.

안동시(일자리경제과)와 안동대학교(안동형 일자리사업단 창업커뮤니티센터)는 '창업은 놀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기업 인턴십 지원, 창업생태계 구축, 학생창업 육성, 창업기업 지원, 지역 창업축제인 BETA 페스티벌 개최 등 창업 전 주기에 걸쳐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 분야에서 인력풀(pool)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교육형 인턴십은 1인당 최대 210만 원, 취업연계형 인턴십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SK바이오사이언스,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등 지역 17개 기업에서 35명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1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지역기업은 인턴 기간을 거쳐 검증된 인재를 고용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신규 채용 훈련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했다. 또한, 지역인재는 원하는 기업에서 다양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창업생태계 구축사업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들이 협의체 구성을 통한 긴밀한 네트워킹을 토대로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4개 회원사의 참여 속에 주 2회, 총 46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창업가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한, 창업터를 통한 상시 멘토링으로 예비 및 기창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 학생창업 육성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대학생 창업자들을 지원해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아이템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창업 준비 수준, 기술의 우위,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6팀(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정된 팀에는 창업활동비 각 600만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1개 팀이 실제 창업에 성공하며 탄탄한 기업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 '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7년 미만까지의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청년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확대 지원하는 '창업 첫걸음 지원사업', 유망기업의 발돋움에 지원하는 '창업 도움 지원사업',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 성장 지원사업', 창업이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하는 '수요맞춤형 창업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총 31개의 기업이 참여해 5개의 신규사업자 등록, 18명의 신규고용을 이루는 성과를 냈다.

△ 지난 5월, 안동대 세계물포럼 기념

센터 전망카페를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의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안동시와 K-water, 안동형 일자리사업단은 지난해 개최된 BETA 페스티벌 2022 카페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1년간 카페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망카페의 첫 창업자가 된 김기현 씨는 '포크(Fork)와 핑거(Finger)푸드를 즐기는 디저트 공간'이라는 뜻인 픽(FICK) 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 BETA 페스티벌은 'Be an Entrepreneur at Andong'의 약자로 '안동에서 기업가가 되자'라는 의미의 경북 최초 스타트업 중심 창업축제이다. 창업기업과 투자자 등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문화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개최해왔다.

안동시 관계자는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는 창업-창업 도시'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을 펼쳐 안동형 창업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사업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디지털새싹캠프 운영사업' 공모선정

## 포스텍과 함께 디지털 교육 확대와 디지털 격차 완화 위한 SW·AI 교육

경북도는 17일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한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사업」에 경북도 컨소시엄(포스텍·경상북도·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주)에듀플랜트)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사업은 가정 배경, 교육 여건 등에 따른 디지털 교육 격차 발생을 최소화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2025년부터 시작) 시행 전 초·중·고 학생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수요에 맞춰 체계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북도는 맞춤형 SW·AI 교육 및 체계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교육 및 연구전문성을 보유한 포스텍, 우수한 현장 전문가 및 노하우를 보유한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 다양한 교수재와 커리큘럼을 보유한 에듀플랜트와 산·학·연·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총 5억3천만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해 경북지역 초·중·고 학생 1천622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주관기관인 포스텍을 중심으로 2024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경북지역 41

개 늘봄학교를 포함한 일반학교, 도서벽지, 다문화, 특수교육 등 사회적 배려학생부터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까지 수준별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초·중·고 학생의 디지털 교육 확대 및 디지털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SW·AI교육을 시행한다.

특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수요·상황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해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한다.

또 포스텍 전임교원을 활용해 최신 AI 교육트렌드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 및 강사진 역량 강화 특화교육을 실시해 타 기관과의 차별점을 주고자 계획했다.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초급과정인 놀면서 배우는 재미있는 코딩, 스타트 AI로봇, 고급과정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VR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챌린지,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로 탐색 등 대상과 수준에 맞춘 23개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무료로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컨소시엄 각 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경북은 포항부터 울릉까지 도시, 농어

촌 등 다양한 환경의 지역이 혼재해 있어 디지털 격차가 크고,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정보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상권에서는 유일하게 41개 늘봄학교가 지정되어 있어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방과 후 교육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육 선도학교와 일반학교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텍, 경북ICT융합산업진흥협회와 협력해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호우피해 상황 및 복구 지원 점검 회의' 실시

봉화군은 16일 박현국 봉화군수 주재로 각 실과소장과 긴급으로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해피해의 신속한 복구 대책회의를 열었다.

군은 지난 6월 호우피해에 이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진 강우로 또다시 관내 곳곳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박현국 봉화군수는 "주택마을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연장 책임하에 산사태, 급경사지 등 인명

피해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고지대로 긴급 대피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피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사와 잠자리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말하며 "이번 비 피해로 유실, 매몰된 도로가 많아 노약자, 응급환자 등 통행에 상당한 지장이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도로를 복구해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부서에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대학생 체류형 일손돕기 프로그램 성료



의성군은 한양대학교 학생 90여명이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 농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방문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어

린들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농촌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군을 방문한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체류형 일손돕기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성군 안계면 교촌농촌체험휴양마을에

서 머물며 안계면 일대의 농가 일손 돕기 및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일정에는 △의성군 현황, 청년정책 강좌 수강 △스마트팜 딸기 농가 일손돕기 △안계면 교촌리 및 안정리 일대 환경 정화 활동 △어르신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지호 한양대 총학생회 전략기획국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농촌봉사활동을 기획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의성군 관련부서의 도움으로 이렇게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됐고, 농장의 일손돕기 뿐만 아니라, 마을이장님의 도움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놀며 고감하고, 마을 청소도 하는 것 재미있어하고, 뿌듯해하는 학생들이 많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상운 교촌리 이장은 "대학생들이 마을에 와서 마을 청소도 해주고, 마을

어르신들과 웃놀이, 종이접기 등 함께 놀아주고 하는걸 보니 오랜만에 활기찬 동네의 모습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라며 화답했다.

의성군에서는 대학생 체류형 일손돕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숙박비용을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점수 부여 또는 봉사학점을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앞서 대구가톨릭대, 숭실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체류형 영농프로그램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체험 후 돌아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양대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의성군의 아름다운 농촌경관 및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위해 함께 댈다

## 두 기관 17일 APEC 정상회의 유치 위한 공동마케팅 및 홍보 업무협약 체결

경주시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기관·시설 간 민관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며 발 빠른 유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기관은 17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 및 홍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관광호텔과 콘도 등 11개 숙박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치 관련기관 및 숙박시설과 협업을 통해 성공적 유치를 위한 대내외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공동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관광객 대상 유치 분위기와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경우 11개 숙박시설은 모두 정상용 숙소로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코오롱호텔을 제외하면 회의장소인 화백컨벤션센터와 함께 보문관광단지 내 모두 밀집해 있다. 코오롱호텔 또한 화백컨벤션센터와는 불과 8km 정도 떨어져 있을 뿐이다.

더불어 관광호텔과 콘도, 일반 숙박업 372개소, 1만5338실도 마련돼 있다.

반면, 정상을 위한 고급 객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상용 객실은 어느 도시에서 개최하더라도 당장 충분한 확보는 쉽지 않다. 이는 향후 부분적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문단지 내 콘도와 리조트를 활용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숙박시설들은 대도시의 천편일률적인 고층 호텔과는 달리 아름다운 보문호를 배경으로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강점이다.

이밖에도 경주는 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와 숙소 간 이동 동선이 매우 짧고, 산으로 둘러싸인 항아리 모양의 지형적 특성과 고층 건물이 적어 경호와 안전을 위한 입지조건은 국내 어느 도시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성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은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화시켜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반드시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엑스포와의 통합으로 전문성과 경쟁력이 강화된 만큼 정상회의의 유치는 물론 2030년까지 경상북도 비전인 관광역 1억 명, 관광수입 5조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상과 참가자들이 개최국과 도시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숙박시설"이라며 "경주를 찾는 모든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통해 APEC 정상회의의 개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 예천군농업기술센터, '미소진미', '영호진미' 최고품질쌀 생산 도와요!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최고품질쌀로 선정된 영호진미(2018), 미소진미(2020) 품종의 재배면적(5,000ha)을 확대하면서 고품질 예천쌀 생산을 위한 7월 분담 관리 기술을 소개했다.

먼저 품종에 따라 시기적절한 '물떼기'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소진미'는 중만생종, '영호진미'는 만생종으로 '미소진미'는 7월 초중순, '영호진미'는 7월 중하순 중간 물떼기를 시행한다.

젖은 강우가 지속되면 5~7일간 논 바닥이 갈라질 때까지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8월에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물 걸러대기를 해 뿌리 활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출수 15일 전 이삭거름을 살포하는데, '미소진미'는 7월 하순, '영호진미'는 8월 초순에 실시하며, 다만 모내기 때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면 이삭거름을 생략하거나 영화가리를 살포(영화가리 5kg/10a)해 도복 저항성을

## 물관리, 이삭거름 시용, 병해충 방제 등 관리 기술 안내



증대시키는 게 좋다. 특히, 7월 젖은 강우로 인해 벼가 웃자라고, 저온 다습한 조건으로 질소질 비료가 과다하면 잎도열병이 발생하므로, 초기 적절한 방제를 해 출수가 이

후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농가에서는 잎도열병을 발견하면 발생 초기 주변에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하고, 이삭도열병 예방 위주로 필지당

벼 이삭이 2~3개 보일 때 1차 방제를 하고, 발생이 심한 경우 5~7월 후 2차 방제를 해야 한다.

성병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천에서 30년간 재배된 일품벼를 고품질 품종인 '미소진미', '영호진미'로 대체하기 위해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가들이 새로운 품종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재배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시는 릴스 영상 분야 최우수상 1편 150만 원, 우수상 2편 각 80만 원, 장려상 3편 각 30만 원, 사진 분야는 최우수상 1편 70만 원, 우수상 2편 각 35만 원, 장려상 3편 각 2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8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조남 홍보전산실장은 "이번 공모전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영주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참신한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주시, '2023영주 릴스 영상·사진 공모' 수상작 12편 선정

영주시는 '2023 영주 릴스 영상·사진 공모전'에서 수상작 총 12편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영주를 소재로 한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영주의 특색을 신선하게 담아낸 릴스 영상 분야 35편, 사진 분야

64편 등 총 99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접수된 작품은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이 스주제 적합성 △완성도 △창의성 △대중성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상작 12편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릴스 영상 분야 최우수상은 '특별한 내가 특별하게 보내는 하루' (경북 포항시, 김○영)로 영주호, 무섬마을,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관광지에서 보내는 특별한 시간을 따임에 있는 이야기와 생동감 있는 연출로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 분야에서는 소백산 연화봉 능선으로 길게 이어지는 계단 사이로 피어난 연분홍빛 철쭉 꽃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포착한 '천국의 계단'(충북 증평군, 이○경)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 군립청송야송미술관 지역작가 초대전시회 '묵향을 찾아 여기 머물다'展 개최

청송군은 7월 14일(금)부터 8월 6일(일)까지 군립청송야송미술관에서 지역작가 초대전시회 '묵향을 찾아 여기 머물다'展을 개최한다.

청송군종합시설관리사업소와 (사)청송미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군립청송야송미술관과 심상홍 작가, 심연희 작가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청송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미술 작가들이 소속된 (사)청송미술협회와 함께 마련했으며,

지역 문화예술 작가들의 예술혼이 담겨져 있는 미술 작품들을 야송미술관에서 선보임으로써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청송의 우수한 문화예술 역량 수준을 적극 알리기 위해 열리게 됐다.

초대작가로 참여한 심상홍 작가는 청송 출신이자 고향에서 교육자로 청송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분이다. 도평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한 후에는 한국미술협회 및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써 미술과 문학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이다.

심상홍 작가와 함께 초대작가로 참여한 심연희 작가 또한 평소 서예와 문인화에 대한 조예가 깊어 경북서예전람회 청송지부장 및 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청송초등학교·청송문화원·목림회 등에서 서예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미술 발전을 위해 학생들과 군민들이 우수한 문화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지역 문화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멋을 느끼면서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청송군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통해 희망이 넘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실국장급 지역책임관 지정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 점검

### 문경, 영주, 예천, 봉화 등 주요 피해지역에 실국장 책임관 현장투입

경북도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역 주민 대피 행정명령 시행 후 후속조치로 주요 피해지역인 문경, 영주, 예천, 봉화 등 4개 시군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고 현장의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실국장을 지역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에 파견한다.

12일에서 15일까지 나흘간 집중호우로 경북도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이어지면서 현장 행정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실국장급 인사를 현장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각 지역별로 임명된 지역책임관은 피해 지역은 물론 해당 시군 전 읍·면의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특히 피해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등 현장형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지역책임관은 영주 풍기·장수, 문경 산북·동로, 예천 용문·감천·효자·은풍, 봉화 춘양을 중심으로 집중 피해점검에 나서며,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을 예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경북 남부권의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로 책임관을 임명하여 현장 대응하고 동해안권의 피해 예방 계획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집중호우가 그치면 일일 2~3백명의 도청 공무원을 피해지역으로 급파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새마을회·부녀회 등 자원봉사 활동도 체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피해지역 주민의 민원과 행정력 동원 등 다양한 현장 문제를 지역책임관을 통해 즉각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15일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내리고 중앙부처 및 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피해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근수/기자



## 김동희 영덕부군수, 여름철 풍수해 대비에 총력

영덕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군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동희 영덕부군수는 자연재난 담당부서인 안전재난건설과 직원들을 대동하고 지난 6월부터 관내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형사업장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읍·면을 직접 방문해 풍수해 대비 주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피해 예방에 철저함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군수는 재해취약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개개인 임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영덕군은 부군수를 책임자로 하는 사전 예찰단을 편성해 재난 대비에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업무 구분 없이 동참하고 유사시 투입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동희 영덕부군수는 "집중호우 발생 시에는 작은 위험 요인이라도 감지될 경우,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등 과도할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며, "오는 재난은 막을 수 없지만, 인명피해 제로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영양군, 인구정책 창작뮤지컬, '피노키오 이야기' 공연

### 2023년 경상북도 범도민 인식개선 사업 선정

영양군은 오는 7월 18일 저녁 7시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인구정책 창작뮤지컬 '피노키오 이야기'가 공연될 예정이다.

'피노키오 이야기'는 기존에 알고 있던 피노키오 이야기가 아닌 창작극이다. 세미뮤지컬 형식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관람가 공연이며, 공연 시간은 약 40분 정도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다.

경상북도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2023년 경상북도 범도민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고착화된 저출생 사회 분위기로 인한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 주도형 범도민 인식개선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번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인구정책 창작극 공연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영양군은 '인구정책 창작극 공연' 및 '젊은 경북, 청춘 동아리 활동' 사업 등 두 가지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의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는 이미 심각하다"며, "이러한 문제들에 모두가 공감하고 출생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 경상북도 인구정책 창작극 공연사업

여기 문화속 깊은 비밀의 숲  
아름다운 꽃들이 노래하고  
푸르른 나무가 춤을 추는  
여기 문화속 깊은 비밀의 숲  
행복한 가정을 꾸린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시작되네...

The story of Pinocchio

인구정책 창작뮤지컬

일시 | 7월 18일 화요일 19:00  
장소 | 영양군문화체육센터

주최 | 경상북도 | 주관 | 국민문화 | 협력제작 | 브리즈컴퍼니(주) | 후원 | 영양군

## 해운대 우수상품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만나요

### 가리비 통관자·우리밀 카스테라·명인 어간장·건강염·천연성분 치약

해운대구는 지역 우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동영상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추진한다.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해운대'를 검색하면 해당 방송에 접속할 수 있다. 9~50% 할인가로 제품을 살 수 있어 실속 쇼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8일 오전 10시 가리비 통관자, 낮 12시 우리밀 카스테라를 판매한다. 19일에는 오전 11시 김나경 명인 프리미엄 어간장, 오후 2시 미니 합격이당 건강염, 오후 4시 잇몸 일으키기 치약 세트를 만날 수 있다.

20일 오전 10시 김나경 명인 프리미엄 어간장, 오후 2시 잇몸 일으키기 치약 세트를 판매한다.

가리비 통관자=3cm 두께의 손질 냉동 가리비 통관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식자재인 관자는 셀러드, 리조또, 감바스와 잘 어울려서 요리의 맛과 영양, 풍미를 높여준다. 포장지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원산지 등 제품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다.

우리밀 카스테라=2022년 해운대 특색식품으로 선정된 우리밀 카스테라는 우리 땅에서 자란 100% 우리밀, 비정제 유기농 설탕, 유기농 버터, 유정란으로 만든다. 최고의 재료만을 고집하며,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들어 온 제빵 인생 32년 박성문 대표의 열정이 담겨 있다.

김나경 프리미엄 어간장=부산시가 인증한 김나경 명인이 남해안 멸치와 자연산 홍합으로 만든 무색소, 무첨가제, 무방부제 간장이다.

미니 합격이당 건강염=30여 년 경력 한의사가 개발한 한방 건강 간식이다. '목편염'은 목에 좋은 도라지, 천궁, 복령, 사인, 감초, 박하가 들어가 있어 답답한 목을 시원하게 하고, 상쾌한 박

하 향이 잠을 달아나게 해준다. '목편염'은 작약, 당귀, 천궁, 황기, 지황, 생강, 대추, 계피, 감초로 만들어 힘들고 지칠 때 한 알씩 먹을 수 있도록 개별 포장했다. 부드러운 카라멜 식감으로 기존 염과 다르게 이에 많이 달라붙지 않는다고 한다.

잇몸 일으키기 천연성분 치약=히알루론산,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미르오일, 글로브오일 등 잇몸 염증 완화에 좋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다. 20년 이상 치과제품을 개발한 연구팀이 개발한 치약으로 암환자를 비롯해 만성 질환자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치아교정 중인 사람, 임플란트로 통증이나 출혈이 있는 경우 잇몸병 개선에 효과적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통해 해운대 기업들이 작지만, 강

한 스타기업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LG헬로비전과 협력해 사업 컨설팅, 온라인 쇼핑물 입점 지원 등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민들께서도 이번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송중진/기자



## 대구시, 팔공산을 기억하고 기록하다

### 팔공산 23번째 국립공원 승격 기념, 팔공산 주변 풍경들을 기록한 전시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은 2023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해 어반스케치스 대구 작가들과 함께 팔공산의 다양한 풍경을 그린 기록과 이야기를 담은 기획전시회를 7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한다.

팔공산은 해발 1,192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과 서봉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대구를 비롯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다. 신라시대에는 '부악(父岳)', '중악(中岳)' 또는 '공산(公山)'이라 했으며, 조선시대부터 팔공산이라 불렀다.

대구 경북의 대표 명산인 팔공산이 1980년 5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 만에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것이다. 팔공산에는 지정문화재로 보물 18점, 유형문화재

21점, 문화재자료 21점, 국가민속문화재 1점, 국가등록문화재 1점, 기념물 1점 등이 있다(2022년 8월 기준). 이곳에는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와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위치해 국내 불교 역사·문화의 중추적 거점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현재 팔공산의 사찰, 마을, 자연 풍경 등 다양한 장소를 어반스케치스 대구 작가들이 그림으로 기록한 그림들을 전시한다. 어반스케치스는 도시의 풍경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SNS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공유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단체이다. 이번 작품들은 작가의 관점으로 들여다 본 팔공산의 모습과 주변 이야기들을 담은 일종의 기록화라고 할 수 있다.

신형석 박물관운영본부장은 "이번 기획전시회를 통해 팔공산의 다양한 모

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 기대하는데, 어반스케치스의 그림 속에서 팔공산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면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팔공산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앞으로 대구방짜유기박물관이 팔공산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방짜유기박물관은 이번 기획전시 외에도 전시실 연결 통로에서 '팔공산에 남겨진 태조 왕건의 흔적' 작은전시(7.6.~12.31.)를 개최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2023년 대구방짜유기박물관 특별기획전

팔공산을 기억하고 기록하다

대구방짜유기박물관 기획전시실

2023. 7. 21. FRI — 10. 29. SUN

× 어반스케치스 대구

DAEGU |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 올여름 슈퍼엘니노 예고...경남도, 태풍·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재난사고 안전 행동요령이 포함된 카드뉴스를 제작, 적극 홍보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올여름 유례없는 슈퍼엘니노 예고 등 이상 기후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주의를 당부했다.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차이날 때 '슈퍼 엘니노'라고 부르며 이 시기에는 기상변화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 강력한 태풍·집중호우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경남은 최근 5년동안 미탁, 마이삭 등 9개의 태풍 기간에 56,380건의 119신고가 접수되었고, 1,018건의 구조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전국 5개의 태풍 중 11호 힌남노만 경남에 직접 영향을 끼쳤고,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태풍과 호우로 다수의 피해가 있었

지만 경남소방은 계곡 고립 인명구조 1건과 50개소 448톤의 배수지원, 450건의 안전조치 등 501건의 출동으로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다. 7월말까지 경남소방본부는 도민의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장비 100%가동 상태 유지, 유관기관 협력 강화, 인명피해 및 재해취약시설·지역 471개소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호우주의보 및 경보, 태풍예비 특보 등 재난초기부터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119수보대 증설(22회선→최대 94회선) 및 단계별 근무자를 보강하는 등 다소 과하리만큼 적극적인 대처로 도민 안전 확보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선제적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안전 행동요령이 포함된 카드뉴스를 배포해 언론에 제공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지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 생활매체 송출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 참고 : 호우발생 시 행동요령 ① 산사태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 ② 외출자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 확인 ③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개울가, 하천변에 가까이 가지 않기 ④ 산이나 계곡에 고립될 경우 119 신

고후 도움 요청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태풍·집중호우는 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야외활동을 삼가는 등 자발적인 안전 동참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위급한 도민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긴급 신고는 자제하고 거주공간 주변의 안전 위험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장재현/기자

## 송파구, 여름방학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점검 추진

###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집중 단속 실시



송파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3주간 송파경찰서, 아동·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송파구는 관내 영업 중인 룸카페, 만화카페, 보드카페, 파티룸 등 청소년출입시설 77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 점검에 나섰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이를 시설이 밀실 또는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류 또는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를 '신변중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당시설의 밀실, 밀폐, 침구류 비치 등 공간 구성 부적절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대상시설이 부적절한 시설 및 운영의 형태 점검 결과, '신변중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출

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기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경찰고발 조치 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신변중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 '합천 호텔 먹튀 사건'국면 전환되나...주관금융기관'짬짜미'의혹

### 군, 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리금융기관 관계자 고발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주관 및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을 고발하며 그간 시행사 '먹튀'에 집중되어 있던 '합천 호텔 먹튀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7일 합천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금융기관 측 PF대출 업무 담당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금융기관과 시행사는 직접적인 공모, 혹은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시행사의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반적인 PF대출 자금 인출 과정은 차주인 시행사의 독단적인 판단 및 지출을 견제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주, 신탁사, 시공사 등의 자금 집행 동의를 받아야만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것에 비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대리금융기관과 시행사가 PF대출 자금 집행 동의 과정에 군과 시공사를 철저히 배제하며 '짬짜미'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대리금융기관 PF대출 업무 담당자 등을 경상남도 경찰청에 고발, 수사를 의뢰 했다"며 "시행사와 감리업체간의 이면계약서 존재, 동일 용역 중복계약 등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집행이 대부분으로 시행사와 자금 집행 동의권자인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의 공모가 의심 된다"고 전했다. 이번 형사조치 결과에 따라, 군의 손해배

상액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합천군에 따르면, 시행사가 대리금융기관에 제출한 지출증빙서류에 시행사가 사업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계약금액과 실제계약금액의 차액을 시행사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라는 확인서도 첨부되어 있으며, 21.12.7일 대출 약정 후 이를 후인 21.12.9일에 일어난 PF대출의 최초 자금집행임을 감안했을 때, 대리금융기관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만 했어도 시행사의 전체 사업비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A금융사에 근무하는 B씨에 따르면 "대출원리금 회수와 안정적인 상황을 핵심가치로 삼는 PF대출에서 기본적인 지출증빙서류와 용역의 적정성, 용역 기성고의 내역 등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는 것만 아니라 대리금융기관에 대한 지난달 27일 경남청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 또한 유착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실제 대리금융기관의 PF대출 책임자와 시행사의 전 이사 H씨가 과거 타 금융기관에 장기간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이 확인되어 그 유착이 짙어졌다. 군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잠적한 시행사 측 K대표 보다 대리금융기관과의 PF관련 업무를 전담한 시행사 전 이사 H씨를 금융기관과 시행사 유착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3일 대리금융기관은 실시협약 및 대출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는 독소조항을 근거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대출 대출원리금 상당을 손해배상 하라는 내용을 합천군에 통보했다. 이에 군은 수차례에 걸쳐 부당 집행된 내역에 대해 공모 및 방조, 민법상 선관주의의무 위반, 대출약정서 위반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며 대리금융기관에 불응을 통보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민간 사업자인 시행사와 합천군이 2021년 9월에 실시협약을 맺고 590억원(PF 550억원)의 사업비로 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4성급 규모 호텔을 짓기로 한 사업이다. 공정을 6% 정도의 기초 토목공사 공사 중 추가 PF가 불가하다는 군의 통보 후 시행사 대표가 잠적했으며, 시행사에서 사업비 250여 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으로, 군 관계자는 "처음부터 시행사는 20~30년 전부터 호텔을 짓고자 하는 합천군의 열망을 이용하려 접근했으며,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먹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대리금융기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태를 해결할 것이며, 군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 경찰청, 7월 23일(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6월 23일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 서명 후 30일째 되는 날인 7월 23일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 국제운전면

허증을 인정하는 반면, 베트남은 우리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양국 간 인.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했고, 6월 23일 체결, 30일 후인 7월 23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

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 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남/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sub>2</sub>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Feel·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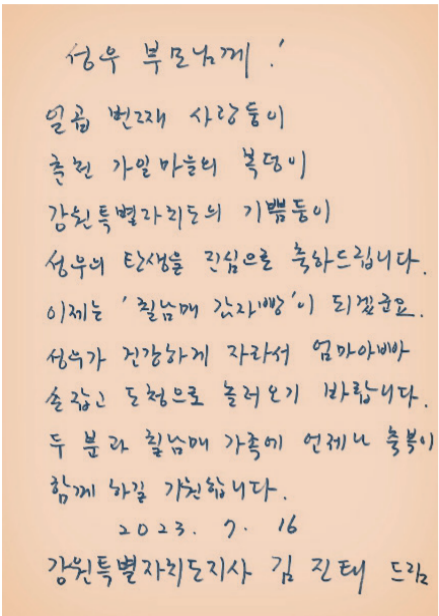
#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 김진태 강원도지사, 춘천 가일마을 일곱번째 다둥이 부부에게 축하손편지 보내.. “건강하게 자라길”

### 춘천 사북면 가일마을 전동훈-류사라 씨 부부 일곱 번째 출산 축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일곱 번째 다둥이를 출산해 화제가 되고 있는 춘천 가일마을 전동훈-류사라 씨 부

부에게 득남을 축하하는 손편지를 전해 기쁜 마음을 전했다. 손편지의 주인공은 지난 7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가일마을에서 태어난 전동훈-류사라 씨 부부의 일곱 번째 아이로 태어난 전성우 군이다. 가일마을은 춘천시내에서 차량으로 40분 가량 떨어져 있는 산골마을로, 대부분 고령층인 50명의 주민들로 이뤄져 있다. 전동훈-류사라 부부는 2006년도에 가일마을로 귀촌하여 감자밭 가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편지에서 “일곱번째 사랑둥이, 춘천 가일마을의 복덩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기쁨둥이, 성우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전하며, “성우가 건강하게 자라서 엄마, 아빠 손 잡고 도청으로 놀러오길 바란다”라며 부부와 7남매 가족에 축복을

기원했다. 도에서는 일곱 번째 다둥이 가족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검토 중이다. 주거복지 자활센터를 활용한 집수리 지원, 교육청과의 자녀 장학금 혜택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LH와 임대주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진태 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부상준 춘천지방방법원장, 예세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도형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김현영 강원대학교 총장,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 오승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등 도내 주요 기관장 29명은 전동훈-류사라 씨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총 1천만 원 어치 감자밭을 구매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진태 지사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인 요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의 일곱번째 다둥이 탄생은 크나큰 축복이자

경사이다”라면서, “강원특별자치도 기쁨둥이 성우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큰 힘을 다 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의 모든 부모들이 행복하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의료 및 출산 양육정책 등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다자녀에 대한 지원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완화했으며,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을 만 8세 미만 아동들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분만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후 3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안심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도내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사업으로 다자녀 특별우대 반비다복카드,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 양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등원/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이어령 창조관' 구상에 유족들 "환영" 박 시장 아카이빙 작업, AI 기술 활용 가상 재현 구현 등 제안

아산시가 대한민국 대표 지성인, 창조 의 대명사로 불리는 고(古) 이어령 선생을 기리는 '이어령 창조관' 건립에 나선다. 특히 박경귀 시장의 사업 구상을 들은 유족 측이 환영하면서 이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영인문학관에서 이어령 선생의 유족대표(배우자 강인숙, 장남 이승무)와 만나 직접 창조관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창조관 조성사업은 유족의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유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이어령 선생님의 저서 ‘흙 속의 저 바람 속의’를 읽고 처음 접하게 됐다. 이후 선생님을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자 ‘크리에이터’로 존경하게 됐다”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고불 맹사성, 함께, 아산시가 보유한 훌륭한 역사 인물이 자산이다. 그래서 꼭 기념사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어령 선생님은 한 가지 분야로 규명할 수 없을 만큼 활동의 폭이 넓고, 뛰어난 통찰력과 창의성으로 많은 이에게 영감을 줬다. 그래서 사업 방향을 ‘창조관’으로 잡았다”면서 “단순한 기념관이 아니라 선생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학술적 기능, 정신적 유산이 담긴 아카이브(기록관), 이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1억 6000만 원(도비·시비 8000만 원)을 들여 창조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이달 중 수행사를 통해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유족 추천 자문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유족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원호/기자



박경귀 시장이 유족대표(배우자 강인숙, 장남 이승무)와 만나 창조관 사업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 충남도 “피해주민 조사 각별히 신경 써 달라”

### 논산 등 피해 심각한 지역에 타 시군에서 장비·인력 지원하는 방안 마련할 것도 당부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도내 15개 시장·군수들에게 피해주민 실태조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1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장·군수와 도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앞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피해조사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늘 시장·군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물이나 가족 등 도민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정말 필요한 피해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규정을 만드는 데,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복구활동에 한 발 더 앞서 나아가길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어제(16일) 청양, 부여, 논산, 공주를 다녀왔는데, 침수된 농경지의 경우 배수관문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 안 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놓여 공공사에 맡기지 말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당장 오늘부터 가용인력과 양수기 등 장비를 동원해서 물을 빼는 작업을 해 달라”고 지시했다. 복구과정에서 피해가 적은 지역의 인력과 장비를 피해가 큰 지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냈다. 김 지사는 “응급복구는 물론 장마 이후 복구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장비와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도와 시군이 협의를 해서 피해가 적은 지역의 민간단체 등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이번에 갖추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앞으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



충남도청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책 점검회의’에 김태홍 도지사가 참석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시장·군수들에게 피해주민 실태조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태백시, 2023년 저소득층 난방용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신청 시작

태백시는 오는 8월 18일까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저소득층 난방용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8년부터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연탄쿠폰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도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본 사업의 해당 가구는 연탄을 가정한 방향(연탄보일러)로 사용하는 수급권자(생계·주거·의료·교육),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이며, 지난해와 대비하여 올해는 만65세 이상 노인인도 대

상이 확대 시행되며, 연탄난로로 난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22년 독거노인 → '23년 만 65세 이상 노인인도 변경 지난해 한 가구당 47만 2천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되는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에 고시하는 연탄가격에 의해 지원금액이 확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연탄공장을 통해 연탄을 구매할 때,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발급하는 연탄전용카드를 이용해 결제 가능하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연탄전용카드의 경우 작년에 발급 받았던 카드를 충전 이후 사용 가능하며, 금년도 신규신청자는 거주중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탄전용카드를 배부된다. 유상근/기자



태백시에서 2023년 저소득층 난방용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

성성호수공원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우수작품 6개 발표, 8월 1일 시상 천안시는 성성호수공원 개방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성성호수공원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성성호수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홍보하고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다. ‘성성호수공원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266명으로부터 모두 702점 사진 작품을 접수했다. 공모 적합성(주제 및 규격 등) 등의 검토를 위한 1차 내부심사에 이어 사진 관련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진행한 2차 심사를 거쳐 6개의 우수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금상에는 ‘성성호수공원의 아름다운 일몰’이라는 작품이 선정됐다. 작품은 일몰의 극적인 빛과 함께 수변산책길을 중심으로 설치된 조형물과 아파트, 호수의 풍경을 빛의 강약 조절로 잘 표현하며 심사위원들의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 외 은상은 ‘수변데크길’과 ‘성성호수 노을’이라는 2개 작품이 받았으며, 동상은 ‘성성의 일출’과 ‘눈 내리는 물



천안시 성성호수공원에서 열린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모습이다.

## 원강수 원주시장, 농업인새벽시장 재해복구 특별지시

원주시는 17일부터 농업인 새벽시장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원주천 둔치가 토사와 쓰레기로 뒤덮여 새벽시장을 임시 휴장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가 어려워 고통이 크다는 농민들의 호소를 확인하고 기상예보와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농업인새벽시장의 긴급 복구를 특별지시했다. 원주시는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담당 부서 직원 등 인력 50여 명과 포클레인 2대, 덤프트럭 2대, 청소차 4대를 신속 동원해 원주천 둔치 주차장 인근 환경정화를 실시하고 재개장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원주시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신속한 피해복구로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원주시는 17일부터 농업인 새벽시장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 하동 섬진강쌀, 영국시장 수출길 올랐다

#### 하동군, 고품질 섬진강쌀 13t 선적식...영국 16개 H-MART 입점 판매 예정

청정 지리산과 섬진강 일원에서 생산된 국내 최고 품질의 하동 쌀이 영국시장으로 진출한다.

하동군은 17일 하동군농협쌀공동사업법인이 하승철 군수, 김은수 NH농협 하동군지부장, 지역 농업 조합장,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동 섬진강쌀 선적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길에 오른 하동 쌀은 13t 3만 5000달러치로, 국내 최대 식품 수출업체인 최창물산(주)이 직접 운영하는 영국 H-마트(H-MART)로 수출돼 영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영국시장 수출은 하승철 군수의 영국·프랑스 시장개척 활동 결과로, 향후 프랑스 시장에서 추가 수출이 유력시된다. 영국의 H-MART는 유럽 최대의 아시아 마트로 영국 현지에 16개 매장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매장 확대를 통한 유

망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동 섬진강쌀은 다른 지역 쌀보다 우수성이 입증돼 지속적인 수출 활동이 기대된다. 현재 하동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하동 섬진강쌀은 유럽·미주·중동 등 세계 10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다.

특히 하동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국내 쌀 생산업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 중 하나이다.

섬진강쌀은 맛과 영양으로 빛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쌀 브랜드로, 그 맛과 가치가 영국 시장에서도 알려지게 됐다.

영국 소비자들은 하동 섬진강쌀을 통해 한국의 풍부한 식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요리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섬진강쌀은 영국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로 그 가치를 널리 알리게 될 전망이다.

최광용/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5명 전원 금메달 획득, 국가종합 1위

2023년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총 8일 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3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IPhO)에서 한국대표단 학생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계 86개국 387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경연을 펼친 이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노이현(서울과학고3), 서규민(서울과학고3), 이준서(서울과학고3), 이현채(서울과학고3), 한중윤(경기과학고3) 학생이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우리 나라는 중국과 함께 국가 종합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는 실험 시험과 이론 시험이 각각 5시간씩 이틀 동안 진행되며, 실험 20점과 이론 30점을 합한 5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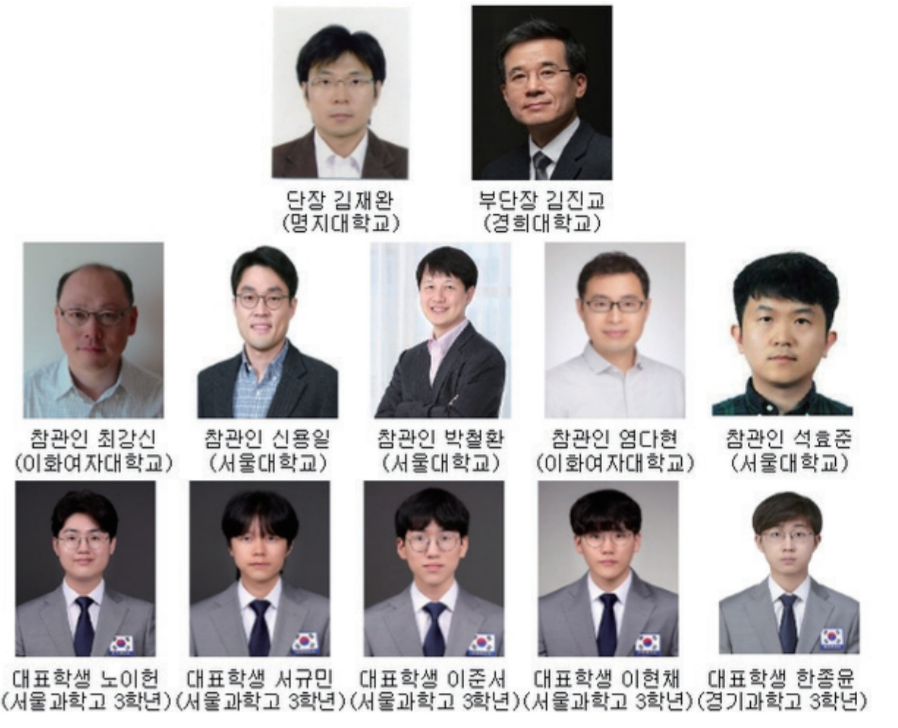
올해 실험 시험에서는 '키블저울의 원리를 이용한 질량 측정'과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두께 측정' 문제가 출제

됐으며, 이론 시험에서는 '액체 속을 떠도는 작은 흩 입자의 특성', '중성자 별과 중력파', '물의 표면 장력'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올해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한 대표 학생들은 한국물리학회에서 제공 하는 통신교육과 겨울학교 및 집중 교육 등을 거쳐 아시아물리올림피아드(APhO)를 통해 선발됐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재완 한국물리학회 한국물리올림피아드 위원장은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출전하기까지 길고 험난한 과정을 물리에 대한 흥미와 열정으로 극복해 온 학생들이 대견스럽고, 이틀만 아니라 올림피아드 교육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충북도, 2023년 7월 건축물, 주택 등 재산세 1,780억원 부과

#### 7.31까지 인터넷, 가상계좌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납부 가능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78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부과 1,821억원과 비교해 41억원(2.3%) 감소한 수치다.

올해 우리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12.74%, 3.74% 하락한 것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에서 43%~45% 범위로 확대 등 요인으로 주택분 28억원 감소, 시가표준액 용도지수 인하 사유로 건축물분 13억원 감소 등 전체적인 재산세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 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9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20억원 △음성군 175억원 △진천군 136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단양군 20억원 △영동군 23억원 △괴산군

25억원 △보은군 25억원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세액 20만원 이하의 전액)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미납하게 되면 재산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정화/기자

###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만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9월 15일 시행 예고



대전시는 17일 하나은행, 하나카드, 버스운송사업조합, 티머니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장우 대전시장,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이성진 대표, 하나카드 이호성 대표이사, 버스운송사업조합 김광철 이사장, 티머니 이태극 대표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사업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한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에는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 6월에는 제1회 추경 예산에서 37억 원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사전절차를 진행해 왔다.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사업 총괄, 시스템 구축 및 손실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무임교통카드 발급 및 발급자 검증, 하나카드는 무임교통

카드 이용대금 환급 및 손실금 청구,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 홍보 및 이용현황 확인, 티머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관리 등 기관별 역할을 맡아 추진한다.

이장우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중순부터 시내 버스는 물론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RT),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은 9월 15일 시행 계획으로, 8월 중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해당 어르신은 카드 발급 신청 장소에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해 이용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어머님 자랑

# 제16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7.29(토)~8.6(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은 세상을 물로 적셔라 장흥에 빠져라!

문화관광축제 VISIT KOREA YEAR 2023-2024

# 경북교육청, 2024학년도 대학 진학경북박람회 성황리 개최

### 경주 HICO에 학생·학부모 4,000여 명 찾아, 22일 구미서 2차 박람회 예정

경북교육청은 15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4학년도 대학진학경북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주관으로 올해 7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대입진학 정보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4,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 6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현장 방문해 진행한 '대학별 맞춤형 진학 상담' 부스는 학생들이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대학별 입학 담당자들과 대면 상담을 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1:1 대입 상담'은 경북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한 72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경북진학지원단 교사들과 맞춤형 진학 컨설팅을 진행했다.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특강'은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진행했으며, '맞춤형 수시 지원 전략 특강'은 총 5개의 주제로 진행했다.

진학 전문가가 직접 진행한 이번 특강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한 학생들은 최신 입시 정보를 폭넓게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학과별 멘토-멘티관'을 운영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16개 학과의 대학생들이 해당 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 멘토링 해 줌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학과에 대한 정보를 더욱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경주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 이어 오는 22일(토)에는 구미코(GUMICO)에서 경북 서부 권역 학생 및 학부모를 중심으로 2차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중식 교육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내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대학 관계자와 진학 담당 교사를 직접 만나 다양하고 생생한 입시 정보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심리·정서 회복 위해 학생상담 확대 경기도내 60%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 심리·정서 안정, 건강한 학교생활 위해 49억 5,300만 원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학생상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상담과 심리 지원을 위해 49억 5,300만 원을 지원했다. 도내 1,513(약 60%)개 학교에서 집단상담, 또래상담, 성장단계별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양시 흥도초 5, 6학년은 18일 컬러테라피와 아로마테라피를 결합한 향비누 만들기 체험한다. 비누의 질감과 아로마의 향을 느끼며 비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기표현과 정서 조절 능력을 기른다.

9월에는 또래상담자가 함께하는 '위캔(Wee Can) 상담소'를 운영해 초등

3·4학년 맞춤 집단상담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또래상담 홍보, 학교폭력 예방 대화법을 부채 형태 교육자료로 제작해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흥도초 또래상담 동아리 학생은 "더운 날씨에 아침 일찍 봉사하는 것이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 노력이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처음에 1,000개 부채가 많아 보였는데 이렇게 빨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지 몰랐고 놀라웠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성남시 늘푸른고는 지난 14일 '늘푸른 복면가왕' 위(Wee)클래스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를 발휘해 자존감을 높이고 친구들과 즐겁게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와 학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상담선생님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관계 개선과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다양한 상담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부산교육청, 'BUSAN 늘봄학교' 운영

### 공모 과정 거쳐 2학기부터 초등학교 50교 시범운영 돌입



지난달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BUSAN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초등학교생에게 정규수업 전후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Build-Up(기반 조성) ▲Support(지원) ▲Activity(활성화) ▲Network(지역협력 강화) 등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부산의 모든 아이를 품는 'BUSAN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마련했다.

'BUSAN 늘봄학교'는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분야를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안 분야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50개의 늘봄학교에서 저학년 맞춤형 놀이·체험 중심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프로그램'과 '방과 후 One+One', '미래형 방과 후 프로그램', '꿈MoA(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한, 돌봄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아침 돌봄 '해봄', 저녁 돌봄 '달봄', 틈새 돌봄 '틈봄', 방학 중 일시 돌봄 '뜨봄' 등 다양한 방과 후 교육활동과 돌봄 프로그램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 밖 분야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통합방과후학교', '우리동네자람터'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1일 관내 초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운영할 'BUSAN 늘봄학교' 시범운영 50교 선정에 나섰다.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할 시범운영 학교는 1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받고, 내년 2월 추가 운영 여부를 검토받는다. 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100교, 2025학년도 305교로 운영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은 학교 여건에 맞는 특색있고 다양한 교육형 돌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모든 아이를 품는 'BUSAN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송중진/기자

# 경북교육청, 학교폭력으로 얽힌 갈등 상황! 전문가가 푼다

### 2023학년도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역량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 상황의 원활한 중재를 위해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해·분쟁조정 전문가'는 도교육청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교사,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변호사, 22개 교육지원청 추천 전문상담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역할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관련 학생 측이 화해,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 지원하게 된다.

이날 연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사항과 적용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이해 △분쟁조정 프로그램 이해 및 위기 개입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다양한 사례의 학교폭력과 갈등 상황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조정 전문가로서의 대처 능력과 자질 함양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및 화해·분쟁조정 사업,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 관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푸른나무재단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중현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은 예방 및 중재가 중요한 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조정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학생, 학부모의 조정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농업인·국민과 함께하는 100년 농협

**유통 혁신**

'올바른 유통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통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동해 묵호항서 만나는 도깨비 페스타 '풍성'

7. 21.(금)~ 23.(일) 3일간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개최



동해시는 동해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오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3일간 묵호항 여객선터미널 광장 일원에서 '2023 묵호 도깨비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처음 개최된 묵호 도깨비 페스타는 그 가능성과 파급력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먹거리, 도깨비 관련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들을 비롯해 묵호태 두들기기 퍼포먼스 등 기존 관람형 콘텐츠 위주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대폭 신설·보강했다.
축제 첫 날인 21일에는 오후 6시 50분부터 여객선터미널 특설무대에서 지역예술인 공연에 이어, 오후 8시부터 조영섭, 박민재, 리사, 독트크루 등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밤도깨비 공연이 약 90분간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축제 둘째 날인 22일에는 시민과 관광객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묵호태

두들기기 퍼포먼스인 '맛있어져라 묵호태', 도깨비 분장 콘테스트인 '오늘은 내가 도깨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오후 7시 40분에는 심규언 시장, 이동호 의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묵호 여객선터미널 특설무대에서 축제 서막을 알리는 도깨비의 밤 세레모니가 진행되며, 이석훈, 테이, 펀치 등 감성 발라드 가수가 출연하는 밤도깨비 공연이 전날에 이어 다시한번 진행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수변공원 부터 해양전망대 일원에는 도깨비 타투 체험, 도깨비 옷장, 도깨비 사진관, 도깨비 난장(클리마켓)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색 체험행사 기간 중 상시 진행된다.
특히, 지역 대표 특산물인 멧돼지와 막걸리, 맥주(도깨비어)와 연계한 '막걸리 먹자, 맥주(도깨비어)를 비롯한 도깨비빵, 동해대개뺨 등 도깨비 캐릭터와 관련된 먹거리 홍보 및 시식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이외 부대행사로 영상 공모전, 도깨비 캐릭터 조형물, 도깨비 소원 빌기, 묵호시장과 동쪽바다 중앙시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도깨비(무비, 코비)를 찾아라, 지역사랑 영수증 투어 등이 있으며, 핑크·블랙 드레스코드 착용 시 각종 혜택도 제공하게 된다.
심규언 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100만 방문객 돌파를 앞 두고 있는 도깨비골 스카이밸리와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묵호 도깨비 페스타의 매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다."라며, "앞으로 논골담길 등 주변 관광지 와 연계하여 묵호권역의 관광·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별화 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오는 20일 열리는 무안연꽃축제
지난해와 다른 볼거리 한가득



올해로 26회를 맞은 전라남도 대표 축제인 무안연꽃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동안 '내 인생의 화양연화, 다시 피어나다.' 주제로 무안군 일리읍 화산백련지에서 펼쳐진다.
연이연하게 진한 사랑이 피어나고, 가족에게는 행복이 피어나고, 노년분들은 꿈과 웃음이 가득했던 시절의 생기가 다시 피어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바로 지금! 소중한 오늘임을 전달하고자 다채로운 볼거리, 놀거리 등을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 군 9개 읍면의 흥을 한데 모아 군민 화합과 축제 성공을 기원하는 합토시 세레모니가 열린다. 정경한 환경이 살아 숨 쉬는 황도땅 무안을 잘 지켜내어 후대에 물려주자는 군민의 결연한 의지와 의미를 담았다.
개막식 후에는 인기그룹 코요테, 우연이, 최유나, 현진우, 화연이 함께 하는 '한 여름밤의 꿈' 개막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한여름 밤하늘을 수놓을 500대의 달빛 드론 쇼와 불꽃 쇼가 이어져 축제 첫날을 화려하게 마무리한다.
달빛 드론쇼에서는 동양최대 100만평의 화산백련지가 만들어진 스토리와 '무안으로 떠나는 행복여행'을 주제로 총 3회(목, 토, 일) 선보인다.
그 밖에 주요 공연으로 21일 금요일 저녁 7시, 70~80세대의 레트로 감성을 깨워줄 ▲TBN 광주교통방송 공개방송 '화양연화 콘서트'에 홍경민, 김현정, 여행스케치, 마로니에 등이, 22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연꽃향드라 OST 콘서트'에 이현성, 조은이 함께 한다. 대단원의 막을 내릴 폐막행사로 ▲연꽃군민가요제는 저녁 6시 30분부터 11개의 참가팀과 초대가수 미스터트롯 명품 청국장 보이스 이찬원

이 출연한다.
체험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무더운 여름 나만의 그늘을 만들어보는 ▲그늘킴터 만들기, 실제와 가상공간이 공존하는 합토시 세레모니가 열린다.
정경한 환경이 살아 숨 쉬는 황도땅 무안을 잘 지켜내어 후대에 물려주자는 군민의 결연한 의지와 의미를 담았다.
개막식 후에는 인기그룹 코요테, 우연이, 최유나, 현진우, 화연이 함께 하는 '한 여름밤의 꿈' 개막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한여름 밤하늘을 수놓을 500대의 달빛 드론 쇼와 불꽃 쇼가 이어져 축제 첫날을 화려하게 마무리한다.
달빛 드론쇼에서는 동양최대 100만평의 화산백련지가 만들어진 스토리와 '무안으로 떠나는 행복여행'을 주제로 총 3회(목, 토, 일) 선보인다.
그 밖에 주요 공연으로 21일 금요일 저녁 7시, 70~80세대의 레트로 감성을 깨워줄 ▲TBN 광주교통방송 공개방송 '화양연화 콘서트'에 홍경민, 김현정, 여행스케치, 마로니에 등이, 22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연꽃향드라 OST 콘서트'에 이현성, 조은이 함께 한다. 대단원의 막을 내릴 폐막행사로 ▲연꽃군민가요제는 저녁 6시 30분부터 11개의 참가팀과 초대가수 미스터트롯 명품 청국장 보이스 이찬원

이 출연한다.
체험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무더운 여름 나만의 그늘을 만들어보는 ▲그늘킴터 만들기, 실제와 가상공간이 공존하는 합토시 세레모니가 열린다.
정경한 환경이 살아 숨 쉬는 황도땅 무안을 잘 지켜내어 후대에 물려주자는 군민의 결연한 의지와 의미를 담았다.
개막식 후에는 인기그룹 코요테, 우연이, 최유나, 현진우, 화연이 함께 하는 '한 여름밤의 꿈' 개막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한여름 밤하늘을 수놓을 500대의 달빛 드론 쇼와 불꽃 쇼가 이어져 축제 첫날을 화려하게 마무리한다.
달빛 드론쇼에서는 동양최대 100만평의 화산백련지가 만들어진 스토리와 '무안으로 떠나는 행복여행'을 주제로 총 3회(목, 토, 일) 선보인다.
그 밖에 주요 공연으로 21일 금요일 저녁 7시, 70~80세대의 레트로 감성을 깨워줄 ▲TBN 광주교통방송 공개방송 '화양연화 콘서트'에 홍경민, 김현정, 여행스케치, 마로니에 등이, 22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연꽃향드라 OST 콘서트'에 이현성, 조은이 함께 한다. 대단원의 막을 내릴 폐막행사로 ▲연꽃군민가요제는 저녁 6시 30분부터 11개의 참가팀과 초대가수 미스터트롯 명품 청국장 보이스 이찬원

주간에는 햇볕으로, 야간에는 조명으로 연꽃 오브제를 활용한 게이트 설치

무안의 농특산물인 연, 양파, 고구마 호박 등을 활용하여 연근함박스테이크, 양파튀김 냉수제비, 연잎쌈밥, 연근해물파전, 연근비빔밥, 삼색떡볶이, 고구마 모주 등 다양한 향토음식도 맛볼 수 있다.
향토음식관 2층 '무안군 특별관'에는 1,500여 종의 수석을 비롯하여 무안중학교 학생들의 화산백련지 그림, 무안읍도시재생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후청동 그림, 규방공예 작품 등을 전시하고 무안군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치유농업 프로그램, 고구마 제품 홍보 및 체험존과 무더위에 지친 관광객을 위한 힐링 쉼터와 고구마 디저트 카페를 운영한다.
화산백련지는 벌써 초록빛 연잎 사이로 우아한 백련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문재 축제추진위원장은 "새로운 볼거리인 화양연화 게이트, 주무대 뒤 라이팅빔을 활용한 연꽃형상화, 느타리나물 길 초입과 풍류쉼터 중앙 등 곳곳에 경관조명을 준비했다"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 지금, 사계절 관광지로서 거듭난 화산백련지에서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안정과 새로운 기운을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국립중앙과학관, 쿼텀 코리아 2023 후속전시회 개최

알다가도 모를 양자의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쿼텀 코리아 2023 후속전시회: 아는데 모르는 양자의 세계'를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지난 6월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글로벌 양자축제 '쿼텀 코리아 2023'의 국제전시회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전시물을 다시 한 번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동 전시는 양자에 대한 개념과 기술적 활용까지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양자과학기술 소개',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과학기술 소개'는 양자,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공간이며, '양자컴퓨터'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최초의 양자 컴퓨터 일대일 실물 모형과 양자 소자들, '양자통신'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통신 3사 등의 양자통신 부품, 양자내성암호장비, 양자암호키보내장비, 양자난수발생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양자센서'에서는 뇌자도 측정시스템, 양자 라이다 센서 등을 볼 수 있다. 모든 전시물은 '쿼텀 코리아

2023'에 참여했던 양자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기업 10곳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양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특강과 전시기획자 해설 프로그램(10회)이 운영된다. 전문가 특강으로 한림대 고재현 교수의 '양자의 창을 통해 바라본 자연'이 7월 29일 오후 2시에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리며 전시기획자 해설 프로그램은 여름방학기간인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두 차례 운영된다. 전문가 특강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예약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로봇 개 '스팟'을 활용하여 국립중앙과학관 정보부터 전시 장소인 사이언스홀 로비까지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을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으며, 관람객께서는 전시를 통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양자의 세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활용까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인천경제청, 29일 핫 플레이스 왕산마리나로

피서 가볼까...용유바다축제 개최

'요트&하이볼'축제 열려...정상급 가수 출연·하이볼 클럽에 해양 콘텐츠도 준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핫 플레이스에서 젊음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바다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9일 영종도 왕산마리나 일대에서 '2023 용유바다축제'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과 인천중구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인천중구청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요트 & 하이볼'이다. 여름, 젊음, 낭만, 바다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요트승선 체험과 해양 스포츠 전시장, 물총놀이, 해양 사진전 등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돼 눈길을 끈다.
먼저, 메인 무대 축하공연에서는 가수 바다, 나태주, 리드파워, 키썬, 영지, 드림노트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보조 무대인 '하이

볼 클럽(Club)'에서는 칵테일쇼, 버스킹 공연, 하이볼 이벤트 등이 펼쳐진다. 이밖에 지역 예술인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축제 기간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풍성한 축제를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특산물 및 음식 부스와 아트마켓, 푸드트럭, 각종 체험 부스들이 운영되며 교통혼잡 대비와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왕산마리나-운서역 광장을 운영하는 셔틀버스도 30분 간격으로 다닌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젊음과 낭만을 만끽하고 바다가 주는 즐거움과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며 "이번 용유바다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2023 당진 문화재 야행! 당찬 당신, 당진을 오라!

당진시에서는 오는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합덕제 일원에서 수리 농경 역사를 주제로 한 두 번째 문화재야행을 개최한다.
두 번째 야행은 여름과 가을 2회 진행하며 야경(夜景), 야로(夜路), 야사(夜史), 야화(夜畵), 야설(夜說), 야식(夜食), 야시(夜市), 야숙(夜宿) 총 8야로 구성되어 당진의 문화유산과 생태자원 경관을 다양한 체험형 행사로 진행한다. 특히 합덕제는 여름의 연꽃이 장대한 수변공원을 조성하며 양수리 두물머리 연꽃단지와 비견되는 수도권에 서 연제는 가을에 갈 수 있는 관광지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여름의 문화재야행은 합덕제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꽃과 자연생태에 관한 주제로 여름 휴가철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합덕제의 아름다운 연꽃과 어울리는 야간 경관을 구성하기 위해 한국의 전통 한지 등공예를 행사 일주일 전부터 설치함으로써 행사장의 자연풍경과 아름답게 어우러질 예정이다. 합덕제의 연꽃단지와 전통 한지 등공예의 조화로

운 경관연출을 통해 밤에 펼쳐지는 체험형 행사로 당진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진 합덕제 인근의 면천 군수였던 연암 박지원을 디지털유전 역사해설사로 등장시켜 당진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메타버스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백성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농경혁신을 꿈꿨던 면천군수 연암 박지원이 들려주는 당진의 역사, 문화 및 본 행사를 홈페이지에서 알기 쉽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열화일기에서 연암 박지원이 수레와 농경의 최신문물을 강조했듯이 본 행사에서는 당나귀 수레마차와 농경에서 필수적인 이동수단인 우마차 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보기 드문 색다른 경험을 가져다줄 것이다.
축제기간에 맞춰 합덕 수리민속박물관 등 주변 문화시설도 본 행사에 맞춰 개방시간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하며, 각각각색의 조명과 함께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더욱 풍성해진 두번째 당진 문화재야행만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당진은 조선시대 3대 저수지였던 합덕제에서 개최되는 문화재야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연초지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가 주최하고 문화재청, 충청남도 후원하며 문화플랫폼 아티온 주관으로 진행되는 2023 당진문화재야행의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호/기자

#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제4회

섬의 날

in 울릉도

울릉 최초의 국가 행사

2023. 8. 8. (화) ~ 8. 11. (금)

\* 기념식 장소 : 사동항, 19:00

